

myFord

2017 JANUARY



New Generation SUV, 2017 New KUGA

2.0L 디젤엔진을 얹고 네 바퀴를 굴리는 유럽산 SUV는 인기가 많을 법한데도 판매 차종은 손에 꼽을 정도다. 새롭게 출시된 2017 뉴 쿡가는 매력적인 요소를 두루 갖춘, 사람들의 요구에 딱 들어맞는 SUV다.

Global SUV Kingdom

SUV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른다. 이미 SUV 라인업을 충실하게 갖춘 브랜드는 느긋하게 이 상황을 즐긴다. 포드는 예부터 SUV 라인업이 강세를 보였다. 요즘 같은 SUV 전성시대에 가장 주목받는 브랜드 중 하나다.



Go Further



Ermenegildo Zegna



포드코리아는 고객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포드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지나고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016년은 포드에 매우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2016년에도 세계적 기업 윤리 연구소인 에티스피어 인스티튜트(Ethisphere Institute)가 주관하는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에 완성차 업체 중 유일하게 7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포드의 심장인 에코부스트 1.0L 엔진이 5년 연속 최고의 소형 엔진에 선정, '올해의 엔진(International Engine of the Year)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2016 북미 국제 오토쇼(NAIAS)에서는 '스마트 모빌리티' 비전 아래 미래 이동수단의 해법으로 떠오른 자율 주행 자동차, 웨어러블 기기, 이동성에 대한 새로운 플랫폼 등 다채로운 미래 혁신 기술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2021년 레벨4 수준의, 그야말로 완전한 자율 주행차 양산을 선언하며 자율 주행차 개발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도 포드코리아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 대형 SUV의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한 익스플로러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2016 KNCAP(신차안전도평가)에서 안전도 최고 등급을 획득했을 뿐 아니라 보행자 안전 확보 부문에서 최우수 차량으로 선정된 몬데오의 선전이 돋보인 한 해였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시작한 사회 공헌 활동(CSR)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 15년간 꾸준한

후원으로 포드코리아의 대표적 CSR 활동으로 자리 잡은 환경보호 후원 프로그램 '포드 그랜츠'를 비롯해 2016년 첫 도입한 운전자 운전 교육 프로그램 '드라이빙 스킬 포 라이프(DSFL)', 글로벌 유방암 예방 캠페인 '워리어스 인 핑크'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뿐 아니라,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분에게 알려지고 참여 또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장은 고객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큰 성원에 보답하고, 또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고객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에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사랑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17년 새해에도 더욱 발전하는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포드코리아가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 1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정재희**

FROM SPACE TO SKIN
우주의 신비함을 담다

MAXELLENC
THE DUAL CONCENTRATE
THE SINGULAR CREAM



스페이스 테크놀로지(deep-space technology)를 담아 출시한 랩 시리즈의 신제품 더 맥스 LS 맥셀런스 컬렉션(The MAX LS MAXELLENC Collection).
희귀한 원료인 운석 추출물의 파워가 남자의 스킨케어에 차원이 다른 럭셔리를 선사합니다.

맥셀런스 공식 판매처

롯데백화점 본점, 잠실점 | 신세계백화점 본점, 강남점, 경기점, 센텀시티점 | 현대백화점 본점, 무역센터점, 대구점 | AK PLAZA 분당점



www.facebook.com/labseries.kr

www.instagram.com/labseries_kr

www.labseries.co.kr ELCA 한국 유한 회사 TEL. 02.3440.2774

HIGH TECH. HIGH PERFORMANCE. SKINCARE FOR MEN. ONLY.™

**LAB
SERIES**
SKINCARE FOR MEN

Contents

myFord

2017 January

Play with Ford

04 CEO Message

2017년 더욱 발전할 것을 약속하는 포드코리아

08 Ford Issue_Safe Driving Life

안전한 운전 문화 정착을 위한 포드코리아의 노력

10 Ford with Culture_The Great Love

따뜻한 사람과 정을 나누며 고객들과 소통하는 포드코리아의 문화 행사 이야기

12 Smart & Technology_Ride the Green Wave

정지 신호 없는 자동차 주행 기술 개발에 관해 알아본다.

13 Car Care Tip_So Smart APP

스마트한 세상에서 보다 스마트한 운전자가 되기 위한 필수 어플을 소개한다.

14 New Ford Life_여전히 진화 중인 포드의 첨단 기술

포드자동차에 탑재된 첨단 기술을 알아본다.

18 Focus on 1_Environmental Role Model

포드가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우수한 모범 사례를 살펴본다.

22 Product_New Generation SUV, 2017 New KUGA

매력적인 요소를 두루 갖춘 SUV, 2017 뉴 쿡가를 소개한다.

28 Take 5_More Smarter, More Safer

2017 뉴 쿡가가 더 똑똑해지고 안전해졌다.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 범위가 넓어졌고, 능동적으로 승객을 보호한다.

30 Ford Detail_포드 사륜구동 집중 분석

포드의 SUV 모델인 쿡가와 익스플로러는 네 바퀴 굴림 방식이다. 두 차에 들어간 네 바퀴 굴림 시스템의 특징과 장점, 차이점을 소개한다.

34 Global Ford_Global SUV Kingdom

포드는 예부터 SUV 라인업이 강세를 보였다. SUV 전성시대에 주목받는 글로벌 포드의 SUV를 살펴본다.

38 Tech_Smart Interface

포드를 대표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싱크(SYNC®)가 3세대로 진화했다.

40 Focus on 2_Go Camping with Explorer

포드 익스플로러 오너 가족들과 함께한 1박 2일의 다이내믹한 가을 캠핑 스케치

42 Driving Course_추운 겨울, 몬데오와 활력 충전

포드 몬데오와 함께 떠난 정선 드라이브. 황량한 겨울 오지를 달리며 활력을 채웠다.

48 Theme Travel with Ford_Bling Bling Hong Kong

새해를 맞는 기쁨과 설렘을 담은 겨울 축제가 한창인 화려한 홍콩을 만나다.

22

PRODUCT

New Generation SUV, 2017 New KUGA

매력적인 요소를 두루 갖춘 SUV, 2017 뉴 쿡가를 소개한다.

Life Style

54 Ford Interview_따스한 햇살이 가득한 배우 정원영

무대 위에서 더 빛나는, 무대를 즐기는 배우 정원영을 만났다.

58 Ford Guy_City Dream

젊음과 열정의 아이콘이자 스포츠카 마니아의 꿈의 자동차 머스탱과 디지털 아이템의 조우

64 Beauty_Style in Scent

자신만의 감성을 표현하는 뷰티의 마무리아자 패션의 시작인 남성 향수 제안

68 Driving Music_Party all the Time

때로는 신나게, 때로는 로맨틱하게 파티의 분위기 메이커가 되어줄 신보를 소개한다.

69 Ford Choice_Season Greeting Gifts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동안 표현하지 못한 마음을 담아 전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별했다.

70 Chef's Table_Wonderful Dining

특별한 요리를 찾는 이들에게 후회 없는 선택이 되어줄 아메리칸 그릴 다이닝 에스테번의 송훈 셰프

74 Outdoor Leports_하늘을 날고 싶은 끝없는 욕망, 패러글라이딩

울거울에는 한 마리 새가 된 듯 창공을 가르는 패러글라이딩의 매력에 빠져보자.

76 Class_21세기의 가장 강력한 스펙, 자존감

2017년의 트렌드를 분석한 책들이 가장 주목하는 키워드는 바로 '나 자신'이다.

78 Ford News

포드에서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뉴스

80 Lineup

포드 전 차종 제원 정보

82 Ford Network

전국 포드 전시장 네트워크

발행일 2017년 1월

발행처 포드코리아 마케팅팀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4-17 골든타워 18층

기획·편집 (주)엠큐브파트너스 02-548-1601 디자인 (주)128프로젝트 02-2051-1050

인쇄 (주)미래엔 02-3475-3837

<myFord>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매거진에 사용된 모든 이미지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조용이며 실제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행의 첫걸음이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안전 운전**이다. 처음부터 잘 배운 운전은 여든까지 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터. **안전한 운전 문화 정착을 위해 포드코리아가 ‘드라이빙 스킬 포 라이프(Driving Skill For Life)’를 펼치며 안전 운전**에 앞장섰다.

Editor 김민정

Safe Driving Life



'드라이빙 스킬 포 라이프' 2차 참가자들



BLIS®

안전은 기술이 아닌 습관이라는 말이 있다. 처음부터 안전 운전을 중시하면 평생 모범적인 안전 운전을 생활화할 수 있다. **안전 운전 문화의 중요성을 인지한 포드는 2003년부터 펼친 글로벌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드라이빙 스킬 포 라이프(Driving Skill For Life, 이하 DSFL)’를 펼치고 있다.** DSFL은 포드가 미국 도로안전청 및 각계의 안전 전문가들과 함께 출범시킨 안전 운전을 위한 운전자 교육 프로그램이다. 기본 운전 교육을 넘어 실제 도로 주행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안전 운전 기술과 광범위하고 통합적인 ‘안전 운전 솔루션’을 제공한다. 보다 안전하고 스마트한 운전을 위해 자동차의 속도 및 공간 제어 등 기초 요소부터 장애물 등 환경적 요인과 음주, 졸음, 부주의 등 개인적 요인까지 흔히 겪을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모두 포함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장의 이론 및 실습 교육부터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참고 자료와 게임까지, 다양한 톨을 활용해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포드코리아도 지난 2016년 7월 1차 클래스를 시작으로 9월에는 2차, 10월에는 3차 총 세 차례의 DSFL을 진행했다.** **포드코리아는 올해 국내에서 처음 시작된 DSFL의 공익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생활안전연합과 협업했다.** 1차 클래스에서는 업무 과정에서 운전이 필수고 안전 운전 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회복지사 및 관련 기관 종사자 100명과 함께했다. 성공적으로 마친 1차 클래스에 이어 더 많은 이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차와 3차 클래스는 화성오토시티에서 25~35세의 초보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국생활안전연합 홈페이지와 포드코리아 공식 페이스북에서 참가자를 모집해 진행되었다. 이렇게 총 3회에 걸친 DSFL에 참여한 300명은 올바른 운전 자세 교정, 차량 점검, 기기 조작 방법, 도로 및 속도별 제동 한계, 코너링 주행 체험 등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직접 체험했다. 특히 3차 DSFL에서는 안전 운전을 돕는 다양한 스마트 기능이 탑재된 콤팩트 SUV ‘포드 쿡가’가 주행 교육에 제공되었다. 덕분에 참가자들은 전문 트랙 인스트럭터와 20년 경력의 포드 딜러사 마스터 테크니션과 함께 최고 수준의 연비와 뛰어난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포커스를 트랙에서 직접 주행하고 차량 점검 실습을 하는 기회를 누렸다. **한편, 포드는 안전 운전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선보인 안전 운전 시스템은 ‘사각지대 정보 시스템(BLIS® ; Blind Spot Information System)’과 ‘측면 차량 경고 시스템(Cross-Traffic Alert)’이다.** ‘사각지대 정보 시스템’은 차량 후면 쿼터패널에 위치한 두 개의 레이더 센서가 옆 차선에서 차량이 감지되면 해당 방향의 사이드 미러에 오렌지색 경고등을 밝혀 운전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 또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 경우 깜빡이는 경고등을 이용해 2차 경고를 보낸다. 이 시스템은 사람이 아닌 차량에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사각지대 정보 시스템과 함께 작동하는 ‘측면 차량 경고 시스템’은 직진 중 사각지대에 차량이 진입하거나, 천천히 후진할 때 차량 양쪽에 다른 차량이 접근하면 운전자에게 알려준다.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감지되면 해당 방향 사이드 미러에 경고등을 점멸하는 동시에 경고음 및 계기판 메시지 센터를 통해 위험을 알린다. 포드는 앞으로도 안전 운전을 돕는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안전 운전 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도 펼쳐나갈 예정이다.

LIKE NO ONE ELSE

BANG & OLUFSEN



귀하의 TV와
뱅앤올룹슨을 통합하는
B&O 홈시어터 시스템



베오시스템 4

영화관의 감동, 그 이상의 가치 뱅앤올룹슨 홈시어터

BeoVision Avant 75"

Ultra High-Definition (4K)
Digital 7.1 Surround Sound Module
3-Channel Speaker System (480W)
Seamless Movement of Floor Stand

BeoLab 90

POWER AMPLIFIER 18 x class D, 8200W
Wireless connection via WISA technology
Beam Width Control
Beam Direction Control

BeoLab 5

POWER AMPLIFIER 8 x class D, 5000W
Adaptive Bass Control
Acoustic Lens Technology
Adaptive Bass Linearisation

BeoSound Moment

Wireless Sound System
Pattern Play
Mood Wheel
Integration with BeoMusic app

BeoSystem 4

Home cinema integration system
Vision Clear
Automatic Picture Control
Dolby Digital Plus 7.1

뱅앤올룹슨 압구정 플래그십 스토어 | 02-518-1380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지하 1층 | 02-595-1380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서면) 6층 | 051-638-1380

갤러리아 EAST 4층 | 02-545-1380
롯데백화점 본점 8층 | 02-318-1380
공인서비스센터 | 02-421-1380

현대백화점 판교점 1층 | 031-8017-1385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3층 | 02-592-1380

뱅앤올룹슨 공인서비스는 정식 매장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http://bang-olufsen-blog.com>



워리어스 인 핑크 클래스

사랑은 나누면 배가된다. 포드코리아는 따뜻한 사랑과 정을 나누며 고객들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진심 어린 사랑을 담아 다양한 사회문제에 앞장서는 포드코리아의 문화 행사 이야기를 전한다.

Editor 김민정

The Great Love



2016 포드 환경 프로그램



위시베어 만들기 프로그램

2016 워리어스 인 핑크 클래스 지난 2016년 10월, 유방암의 달을 맞아 10월 15일 유방암 예방 및 퇴치를 위한 글로벌 사회 공헌 활동 ‘워리어스 인 핑크 클래스(Warriors in Pink Class)’를 개최했다. 서울 HJ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클래스에는 모녀, 자매 등 여성 가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방암 지식 클래스’와 ‘여성 건강 커풀 요가 클래스’ 등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포드 워리어스 인 핑크’ 캠페인은 포드자동차가 1993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진행해온 사회 공헌 활동으로 현재까지 약 1500억 원(1억3000만 달러) 이상의 기금을 조성해 유방암 예방과 퇴치를 위한 광범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포드코리아도 2013년부터 시승 기부 프로그램과 유방암 지식 클래스, 여성 건강 커풀 요가 클래스 등 여성 건강에 대한 소통을 촉진하고 그 속에서 유방암 지식과 예방에 대한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매년 전개하고 있다.

난치병 아동을 위한 ‘위시베어 만들기’ 프로그램 포드자동차는 2005년부터 매년 9월을 ‘포드 글로벌 직원 자원봉사의 달(Global Month of Caring)’로 지정해 포드자동차가 진출한 150여 개국 20만 명 이상의 포드 임직원들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포드코리아는 2016년에도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위시베어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한국메이크어위시재단’과 함께 투병 중인 만 3~18세 아이들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 기쁨을 주기 위해 참가자들이 위시베어를 손수 만들어 아동들에게 전달한 것. 아이들의 쾌유와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만든 위시베어에는 사랑과 정성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전국 포드 전시장에서 참여했으며,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임직원들을 고려해 포드 쿡가 디젤 차량을 이용한 ‘위시베어 픽업 카’를 운영해 그 의미를 더했다. ‘위시베어 픽업 카’는 9월 말까지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 여섯 곳의 전시장을 방문해 임직원들이 직접 만든 위시베어 180여 개를 모은 뒤 ‘한국메이크어위시재단’을 통해 아이들에게 전달했다. 한편 이 행사를 통해 포드코리아는 1300만 원을 기부했으며, 기부금은 난치병 아동들의 소원 성취 지원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2016년 포드 환경 프로그램 ‘2016년 포드 환경 프로그램(2016 Ford Korea Conservation & Environmental Grants)’의 후원 대상자 발표 및 후원금 전달식이 지난 2016년 11월 25일에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총 10팀의 개인 및 단체를 발표하고, 앞으로 이들이 포드 환경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할 활동에 대한 기대와 격려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2015년 후원 대상자인 ‘생명다양성재단’과 ‘환경교육센터’도 참여해 지난 1년 동안 실천한 환경보호 활동과 그 성과를 공유했다. 한편, 포드코리아는 2016년 8~9월 포드 환경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환경보호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환경보호 방법을 짧은 영상으로 제작해 공유하고, 이를 통해 환경보존과 친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나만의 환경보호 레시피’ UCC 공모전을 개최했다. 참가자들에게는 친환경 실천 아이디어 용품으로 구성된 ‘마이 포드 그린 키트(My Ford Green Kit)’를 증정했다. ‘포드 환경 프로그램’은 포드코리아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fordkorea)의 포드 환경 프로그램 전용 탭(<http://fbapp.me/FordGrants/Tab>)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입판매원 : (주)세이오인터내셔널 | www.ceo.kr | 문의 : 080-363-5454

VALENTINO

VALENTINO UOMO

THE NEW FRAGRANCE

DISCOVER THE FILM ON PARFUMS.VALENTINO.COM



Ride the Green Wave

도로에서 녹색 신호만 볼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빨간 신호에도 서지 않고 마음 편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Writer 지현성(자동차 칼럼니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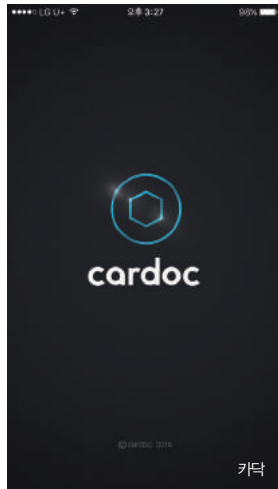


포전의 달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차를 자기 몸처럼 움직이는 현란한 손·발동작, 차의 상태를 온몸으로 느끼는 예민한 감각, 차의 특성을 꿰뚫는 깊은 지식 등 조건은 다양하다. 신호를 파악하는 통찰력도 그중 하나다. 교통신호의 주기나 연동 상태를 파악하면 차의 속도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다. 부수 효과는 꽤 크다. 속도 변화가 적기 때문에 기름이 덜 들고 오염 물질 배출이 줄어든다. 급격한 출발이나 정지가 없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낮아지고, 브레이크를 덜 밟기 때문에 부품 수명도 길어진다.

모두가 이렇게 운전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반복해서 자주 다니는 길이라 습관이 됐다면 모를까,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일을 자동차가 대신 해준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포드는 사람을 대신해 자동차가 신호를 읽는 기술을 시험 중이다. 정지 신호에 걸리지 않고 주행하는 이 기술은 ‘녹색 신호 최적화 속도 조절(Green Light Optimal Speed Advisory)’ 기능이라 불리며, 신호등이 바뀌는 시점 정보를 활용해 신호에 걸리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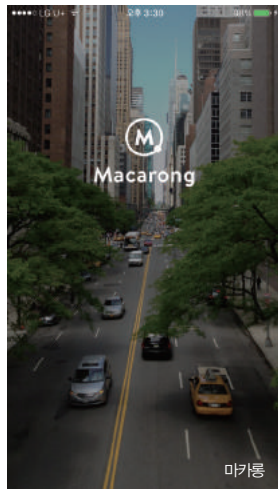
이미 자동차 시장은 자율 주행차와 커넥티드 카 기술 발달로 자동차가 수집하는 도로 정보가 많아졌다. 신호등을 비롯해 다른 차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등 자동차와 인프라 사이에 연결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 이런 정보를 활용하면 신호에 걸리지 않고 달리는 일이 가능해진다. **이미 포드는 자율 주행차와 커넥티드 카 분야에서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신호에 걸리지 않는 기술도 영국 최대 규모의 자율 주행차·커넥티드 카 시험 프로젝트인 ‘UK 오토 드라이브’의 한 부분이다. 녹색 신호에만 통과하는 원리는 자동차와 신호등 사이의 통신이다. 신호등은 교차로 정보와 신호 주기 정보를 자동차에 보낸다. 신호등을 통과할 때마다 받은 정보를 토대로 최적의 속도를 계산한다. 만약 빨간 신호에 걸릴 경우 언제 녹색 신호로 바뀌는지 남은 시간을 보여준다. 신호에 걸리지 않고 달리면 여러 장점이 따르는데, 피로 절감도 큰 효과 중 하나다. 포드에 따르면 운전자들이 자동차를 타고 달리다 정지 신호를 받을 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 신호를 받고 서는 일은 단순히 브레이크만 밟는 동작이 아니다. 브레이크를 어느 강도로 밟아야 할지, 앞차와의 거리는 적당한지 머릿속으로 따져봐야 한다. 평온한 주행 상태가 깨지고 정지했다가 다시 출발해야 하는 복잡한 동작이 이어진다. 차가 많거나 신호가 자주 나타나면 스트레스는 더 커진다. 영국의 경우 운전자가 빨간 신호에 대기하는 시간이 연간 2일에 이른다고 한다. 사람의 통찰력을 대신하는 기술은 신호를 읽는 데 그치지 않는다. **포드는 몬데오 하이브리드 모델을 이용해 전방에서 다른 차가 급정거하는 경우 경고를 주는 ‘긴급 전자식 브레이크 라이트’ 기술을 시험 중이다. 이 기술은 500m 범위 안에 긴급 상황을 감지한다.** 이 밖에도 다른 차가 교차로를 가로막은 경우, 구급차·경찰차·소방차가 올 때 알려주는 기술, 표지판이나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움직일 타이밍을 알려주는 기술 등을 시험할 예정이다. 무인 자동차 시대가 오기 이전부터 이미 운전자가 신경 쓸 일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So Smart APP

스마트한 세상에서 보다 더 스마트한 운전자가 되기 위한 필수 어플만 엄선했다. 당신의 폰 안에 이 어플이 없다면, 지금 당장 설치해 사용해보기길. 또 다른 세상이 열릴 것이다.

Writer 이병진((가 매거진) 수석 기자)



파크 히어

파크 히어(Park Here)는 주차장과 운전자들을 연결해주는 커넥티드 파킹 어플이다. 방대한 주차장의 정확한 정보를 똑똑한 UI에 직관적으로 표현했다. 가장 큰 장점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차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주변의 주차장을 검색한 후 시간대를 설정하면 이용 가능한 주차장과 가격이 공개된다. 실시간 이용 요금과 운영 시간은 물론 주차장 전경, 출입구, 진출입 구간의 경사로, 주차 구획 크기 등 운전자가 궁금해할 사항을 꼼꼼히 챙겼다. 파크 히어라면 차체가 낮거나 덩치 큰 애마의 오너들도 주차 스트레스 없이 도심을 확보할 수 있다.

카닥

사고가 날 확률은 초보 운전자가 좀 높긴 하지만, 사소한 접촉사고는 조금만 한눈팔거나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작은 사고 시 민음직한 실력과 합리적인 가격의 수리 업체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런 곳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 카닥(Cardoc)은 의뢰인과 믿음직한 외장 수리 업체를 연결해주는 어플이다. 사고 부위 사진을 찍어 어플을 활용해 견적을 요청하면 몇 분, 길어도 몇 시간 안에 원하는 지역 내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볼 수 있다. 예상 견적은 물론 업체별 작업 후기까지 열람할 수 있어 객관적 정보와 가격 확인도 가능하다. 실제 작업 후기와 이용 평점 등 업체 및 작업 정보까지 확인 후 의뢰할 수 있어 만족도는 평균 이상. 최근 카닥은 외장 수리뿐 아니라 디테일링 세차 서비스인 카닥 워시, 경정비 관리가 가능한 카닥 테크숍, 관찮은 중고차를 매매할 수 있는 카닥 픽서비스도 선보이고 있다.

모두의 주차장

가장 먼저 국내에 등장한 주차장 공유 어플. 2013년 서울 시내 2000개 주차장 정보를 기반으로 시작한 '모두의 주차장'은 현재 4만여 개까지 그 수가 늘었다. 가입자 수는 무려 35만 명을 훌쩍 넘었다.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 첫째는 주차장 정보 공유 서비스로 이용 시간과 요금, 주차장 종류를 설정하면 조건을 만족하는 주차장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주차장 공간 공유 서비스. 말 그대로 비어 있는 우리 집 주차장을 다른 운전자들과 공유할 수 있다. 어플 메뉴를 통해 공유하고자 하는 자신의 주차 공간을 제보하면 완료. 소유한 주차 공간 유형을 선택하고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주차 스트레스의 고통을 너무 잘 아는 운전자들끼리 상부상조할 수 있는 유용한 주차장 공유 어플이다.

마카롱

자동차를 사랑하는 당신이라면 이미 차계부를 쓰고 있을 것이다. 마카롱(Macarong)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최신식 차계부 어플이다. 기름은 언제 얼마나 넣었는지, 소모품 교체는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주행은 얼마나 했는지, 보험 만기일은 언제인지 등 관리하고 챙겨야 할 자동차 관련 항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마카롱은 기존의 차계부 어플과 달리 서버에 데이터를 저장한다. 스마트폰을 바꿔도 당신의 차계부 정보는 고스란히 유지, 관리되는 것이다. 사용법도 간단하다. 회원 가입 후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자동차 관리가 시작된다.

여전히 진화 중인 포드의 첨단 기술

자동차에 적용되는 첨단 기술은 운전자의 편의와 효율을 위해 개발되지만, 궁극의 목표는 '안전'이다.

Writer 이병진(〈카 매거진〉수석 기자)

액티브 파크 어시스턴트 시스템



크루즈 컨트롤은 단순히 운전자가 원하는 속도로 주행하던 기술이지만, 현재는 일정한 속도로만 주행하는 게 아니라 운전자가 미리 설정한 만큼 앞차와 간격을 두고 가속과 감속까지 해낸다. 거기에 앞차가 정지하면 일정한 간격으로 멈춰 세우고 재출발까지 보기 좋게 해낸다. 정속 주행을 통해 연료 효율을 높이고, 운전자의 피로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태어난 기술은 믿고 맡겨도 충분할 만큼 똑똑해졌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2015년 2월, 영종대교에서 짙은 안개 탓에 108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대부분의 자동차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었다면 이러한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최근 발생한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는 대형 버스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 다섯 대의 자동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다. 이 모든 사고를 막을 수는 없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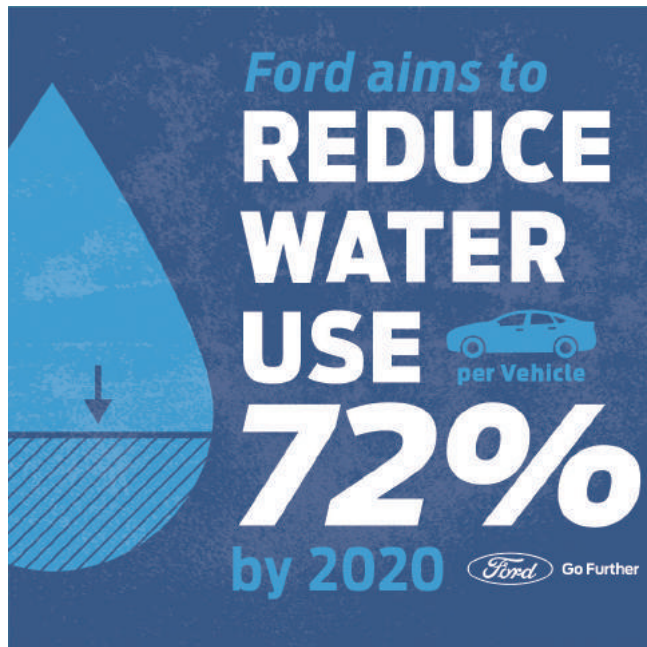
익스플로러를 타고 안개가 짙게 낀 대관령을 넘을 때의 일이 새삼 떠오른다. 가시거리가 10m도 채 되지 않은 최악의 주행 상황. 거북운행을 하는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생각났다. 고속도로에서 연료 효율과 편의를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했지만, 안개 낀 도로에서 이보다 좋은 기술은 없을 것이다. 속도를 맞추고 앞차와의 거리를 최대한 넓게 설정했다. 미리 정해놓은 속도까지 올라가기도 전에 감속을 한다. 잠시 뒤 희미하게 보이는 앞차의 비상등. 만약 시야에만 의존해 운행했다면 앞차와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

기술의 발달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레이더와 카메라를 이용해 차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의도치 않게 차선을 넘어가면 스티어링 휠을 스스로 움직여 차선을 넘지 않도록 한다. 또 앞차와 거리가 급하게 줄어들면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으로 경고를 보내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스스로 제동을 걸어 위험한 상황을 모면하게 해준다. 더 나아가, 포드는 브레이크로 추돌을 피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스티어링 휠을 돌려 안전하게 차를 세우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앞차가 장애물로 인해 급정거하거나 급히 끼어드는 앞차를 피할 때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자동차가 처음 세상에 등장했을 때 헤드램프는 기름에 불을 붙여 사용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후 전구를 거쳐 할로겐램프 등의 시기를 지나 HID 램프가 보편화됐고, 현재는 LED 헤드램프가 대세다. 단지 앞을 비추기에 급급했던 시기에서 보다 밝은 광원을 멀리 보내고,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기 시작했으며, 코너를 돌 때 스티어링 휠의 각도에 따라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잘 안 보이던 곳까지 비추기 시작했다. **포드 개발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가로등이 없는 한적한 시골길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도 연구했다.** 어두운 밤, 적외선으로 전방 120m까지 주시하며 보행자 또는 동물이 탐지되면 별도의 스폿 조명을 비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주의를 주는 것. 보행자 탐지는 최대 여덟 명까지 가능하며, 큰 동물까지 인식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카메라는 도로의 이정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원형 로터리를 읽어들인다.** 또 로터리에 접근했을 때 헤드램프의 좌우 조사 범위를 크게 확대해 측면에서 다가오는 자전거 등을 파악, 안전한 주행을 돕는다. **주차에 자신감을 심어주는 자동 주차 기능도 빼놓을 수 없는 기술이다.** 포드 쿡가에는 평행 주차만 가능하던 기능을 후진 주차까지 업그레이드했다. 사람이 컴퓨터보다 정확할 수 있을까? 주차가 불가능할 것 같던 좁은 공간도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주차가 가능하다. 차를 굽지 않을까 노심초사할 필요도 없다. 단순히 편의 사양으로 보기는 힘들다. 주차장에서 놓고 있는 어린아이들, 애완동물 등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안전'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기능은 글로벌 모델 기준이며, 국내 출시 모델의 기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칼럼은 글쓴이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Environmental Role Model

자동차는 환경에서 시작해 환경으로 끝난다. 만들어진 후 도로를 달리면서 오염을 일으키지 말아야 하고, 만드는 과정에서도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포드는 자동차 브랜드가 환경보호에 어떻게 나서야 하는지 보여주는 우수한 모범 사례다.

Writer 임유신(자동차 칼럼니스트)

1 자동차 한 대당 물 사용량 줄이기

포드는 자동차 생산 과정에서 물 사용량을 4분의 3만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더불어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자동차 생산에 일체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포드의 목표는 2020년까지 자동차 한 대 생산에 소비되는 물의 양을 2000년 대비 72%까지 줄이는 것이다. 2000년에 차 한 대에 쓰인 물은 약 3.8L였다. 2020년까지 목표는 1L다. 전체로 따지면 380억L에 이르는 엄청난 양이다.

EPA 파트너십 프로그램인 워터센스에 따르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 중에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은 1%도 되지 않는다. 나머지 99%는 바다 염수, 극지방의 얼음 등 사용하기 힘든 물이다. 세계 각국에 위치한 포드 생산 공장의 다수는 물 부족을 겪는 지역에 있다. 포드는 생산 공정에서 물 관리를 강조한다. 안정적인 공급용수를 확보하면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물 사용량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포드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물 사용량을 61% 줄여 380억L의 물을 절약했다. 국제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수영장 1만5000개를 채울 수 있는 양이다. 2015년 해당 목표는 이미 2013년에 달성했다. 포드는 중간 건조 및 추가 공정을 줄인 3-웨이트 페인트 공법과 윤활유 사용 최소화 등 신기술을 도입해 매년 수천 리터에 이르는 물을 아낀다. 앞으로도 실시간 물 사용량 추적, 물 사용 현황 평가 등 새로운 수자원 보존 방법을 도입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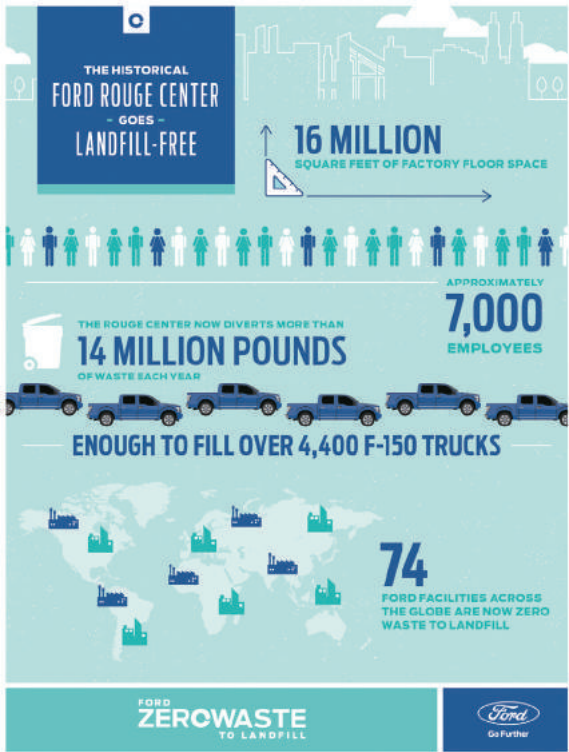


2 클레이 모델 점토 재활용

자동차 디자인에서 클레이 모델 제작은 필수다. 점토로 자동차 모형을 만들어 디자인 완성도 및 개선점을 파악한다. 문제는 클레이 모델 제작에 상당히 많은 점토가 들어간다는 점이다. 포드는 해마다 90톤이 넘는 점토를 사용한다. 남은 점토는 매립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포드는 매립하는 양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점토를 재활용한다. 5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재활용을 시작했고, 분량은 해마다 최대 2300kg에 이른다. 12대의 풀사이즈 클레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양이다(예를 들어 뉴 랩터 클레이 모델은 880kg의 점토를 필요로 한다). 포드는 자체적으로 클레이 재활용 기계를 만들어 지난 5년 동안 9톤이 넘는 클레이를 재활용하거나 재생했다. 대부분의 재활용 점토는 외부 실루엣을 만드는 과정인 밀링에서 나온다. 깎여 나온 점토 덩어리는 차 주변에 위치한 통에 담긴다. 모아진 점토는 재활용 기계로 가져간다. 압축하고 휘젓는 과정을 거쳐 공기를 빼내고 노즐을 통해 뽑아내 재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다.

비록 디자인 과정이 디지털 소프트웨어와 스캐닝 기술에 의해 이뤄지지만, 아직까지도 모형을 변형해보는 도구로는 클레이 모델을 최고로 친다. 소형 클레이 모델이나 디지털 모형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하지만, 풀사이즈로 만들어야 벨트 라인의 모서리나 보닛의 파워돔 등 디테일한 부분을 제대로 살필 수 있다. 클레이 모델을 계속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양을 줄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지난 5년 동안 포드가 재활용한 점토의 양은 350mL 캔 2만6000개를 채울 수 있는 양이다. 아시아 코끼리 세 마리 무게다.





3 매립 쓰레기 제로

앞으로 2년 후, 포드 루지 센터는 매립 쓰레기 제로 상태에 도달한다. 1.5km²에 이르는 공장 면적과 7000명의 직원이 일하는 공간에서 이뤄낸 놀라운 성과다. 루지 센터에서 줄인 매립 쓰레기의 양은 6350톤에 이른다. F-150 픽업트럭 4400대에 실을 수 있는 분량이다. 2004년 이래 포드 루지 센터는 21세기 지속 가능한 공정의 역할 모델로 자리 잡았다. 2014년에는 ‘폐기물 처리 재이용’ 시스템을 구축했다. 한 예로 9000톤이 넘는 알루미늄 스템핑 조각을 재활용했다. F-150 픽업트럭 3만 대 보디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포드 루지 센터의 여섯 개 공장은 전 세계 68개 공장과 함께 매립 쓰레기 줄이기에 나섰다. 포드의 환경 엔지니어들은 각 공장의 쓰레기 처리 흐름을 파악하고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을 내린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디어본 엔진 공장에서 발생하는 금속 조각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였다. 환경관리팀은 ‘브리케터’라 불리는, 금속 조각을 블록으로 만드는 기계를 찾아냈고 이를 이용해 금속 조각을 재활용한다. 금속을 깎을 때 사용하는 냉각수는 공정이 끝나면 뽑아내 재사용한다. 기다란 플라스틱 리벳은 작은 조각으로 잘게 썰어 재활용한다.

4 포드 환경 프로그램

1983년 포드 유럽에서 최초로 시행한 포드 환경 프로그램은 환경 및 생태계 보호 활동을 지원하는 포드의 글로벌 프로젝트다. 현재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환경보호 활동과 관련한 수백 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모두 5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지원해 각 지역 환경운동에 큰 성과를 거뒀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12년 이상 야생동물과 삼림보호는 물론 문화유산 및 지역사회 복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에 처음 시작해 지역사회에서 실천 가능한 다양한 환경보호 및 생태계 보존 프로그램을 후원해왔다. 올해까지 15년 동안 100여 개 단체에 5억 원 이상 지원했다. 특히 일회성 또는 단기간 프로젝트성 활동에 그치지 않고 지역 공동체와의 상생을 도모하며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환경보호 활동을 실질적으로 후원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포드코리아는 지난 2012년, ‘포드 환경 프로그램 10주년 기념 환경 백서’를 발간해 10년간의 환경 후원 활동을 소개했다. 2013년에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3 에코 워크숍’을 개최해 후원 대상자 및 환경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환경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2014년에는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국내의 젊은 환경보호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2014 포드 에코 톡!’ 환경 포럼을 개최했다. 2015년에는 대중들이 업사이클링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제 제품으로 실현하는 ‘2015 에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지난 2016년 8~9월에는 포드 환경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나만의 환경보호 레시피’ UCC 공모전을 개최했다. ‘환경보호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자신만의 환경보호 방법을 짧은 영상으로 제작해 공유하고 이를 통해 환경 보존과 친환경 지속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2016년 11월 25일에는 ‘2016년 포드 환경 프로그램’ 후원 대상자 발표 및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후원금 전달식에서는 후원 대상자로 선정된 총 10팀의 개인 및 단체를 발표했다.



5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

포드는 세계 최대 테킬라 제조사로 유명한 주류 기업 ‘호세 쿠에르보(Jose Cuervo)’와 손잡고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을 개발했다. 소재는 테킬라 주원료인 용설란의 섬유부산물이다. 양사는 개발한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을 배선·공조·보관함 같은 내외장 부품에 적용하기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초기 평가에서 해당 자재는 내구성과 심미적 특성 부분에서 큰 가능성을 보였다.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개발에 성공할 경우 경량화와 에너지 절약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석유화학 제품 사용도 줄일 수 있다. 자동차 생산에는 3년 후쯤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업은 포드의 광범위한 지속 가능성 계획의 일환이다. 제품을 향한 혁신적 접근과 친환경 소재 사용에 대한 기업의 환경적 책무를 보여주는 최신 사례다. 포드는 2000년부터 지속 가능한 재료 사용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자동차 제조사들은 간장 거품, 피마자유, 밀짚, 케나프 섬유, 셀룰로스, 나무, 코코넛 섬유 및 왕겨 등을 지속 가능한 재료로 사용한다. 포드는 이미 미국 하인즈사와 협업을 통해 케첩을 만들고 남은 토마토 부산물을 활용해 자동차 부품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이 밖에도 민들레 뿌리, 콩, 식물성 오일 등 화학물질을 대체하는 친환경 물질을 자동차 소재로 쓰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 칼럼은 글쓴이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New Generation SUV, 2017 New KUGA

2.0L 디젤엔진을 얹고 네 바퀴를 굴리는 유럽산 SUV는 가장 인기 있을 법한 차종이지만, 판매 차종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다. 2017 뉴 쿡가는 매력적인 요소를 두루 갖춘, 사람들의 요구에 딱 들어맞는 SUV다.

Writer 임유신(자동차 칼럼니스트)

하지만 한 듯하지만 막상 찾으려면 없는 것들이 있다. 어디든 가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한 티셔츠가 막상 사려고 하면 이 잡듯이 뒤져도 파는 곳을 찾지 못하곤 한다. 흔한 음식인데도 길 가다가 먹으려고 식당을 찾으려면 없는 경우도 많다. 수만 가구가 모여 사는 동네임에도 평수와 조건, 가격 등이 자신에게 맞는 집을 찾으려면 없다. 상식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다. 국내 수입차 시장은 예전과는 다르게 차종이 많이 늘었다. 세부 차종으로 따지면 500종이 넘는다. 원하는 차를 쉽게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특히 보편적인 차종이라고 생각한 차가 없는 경우가 더 많다. '네 바퀴를 굴리고 2.0L 디젤엔진을 얹고 가격까지 적절한 수입 SUV'는 SUV의 기본 요소를 두루 갖춘 표준 SUV다. 그런데 이런 차는 의외로 찾기 어렵다. 가솔린이거나, 앞바퀴 굴림이거나, 배기량이 작거나, 가격이 비싸거나...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차는 두세 손가락에 꼽을 정도다. 그중 하나가 포드의 2017 뉴 쿡가다.

포드 2017 뉴 쿡가는 180마력의 2.0L 디젤엔진을 얹고 전자식으로 제어하는 포드 인텔리전트 AWD 시스템을 집어넣었다. 쿡가는 포드 유럽이 만들어 유럽 시장에 내다파는, 국내에서 선호하는 유럽산 모델이다.

쿡가는 2008년 1세대 모델을 선보였고, 2세대 모델은 2012년에 등장했다. 포드의 정체성을 강조한 세련된 디자인과 높은 효율성 및 경제성, 합리적인 가격, 우수한 동력 성능 등을 인정받아 인기 모델로 자리 잡았다. 포드 유럽 모델 중에서도 성공한 차로 꼽힌다. 2017 뉴 쿡가는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며 완성도를 높여 더욱 매력적인 차로 거듭났다. 포드의 상징인 육각형 그릴은 전면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가로로 두툼한 두 개의 바를 덧대 강인한 이미지를 완성한다.





다른 모델과 통일감이 높아져 한층 포드답다. 곡선과 직선을 적절히 조절한 헤드램프는 날카로우면서 온화한 이미지를 동시에 살린다. 범퍼 하단에 넓게 자리 잡은 공기 흡입구와 양 끝단에 당차게 자리한 안개등은 역동적 분위기를 이끈다. **세련된 도시형 SUV의 모습과 터프한 오프로더의 특성이 묘한 조화를 이룬다.** 보는 각도에 따라 묘하게 분위기 반전이 이뤄진다. 본질은 SUV지만 옆모습은 크로스오버를 보는 듯하다. 매끈한 차체와 낮아 보이는 전고, 그린하우스 비율을 줄여 역동적 감각을 살린 구성이 동급의 여느 SUV와는 사뭇 다르다. **후면부는 입체감으로 조형미를 살렸다.** 투명 소재로 덮은 테일램프, 날카로운 모서리를 층층이 배치한 라인, 테일램프 사이에 두 겹으로 처리한 철판 등 곳곳에 예사롭지 않은 터치를 가미했다. 겉모습이 튀는 듯하면서 단정하다면, 실내는 반대다. 단정하면서 튼다. 선과 면의 조합에 접힘과 굴곡 효과를 상당히 많이 줬다. 파이고 튀어나오고 각진 부분이 현란하게 이어지는데, 이들 요소가 매끈하게 조화를 이룬다. 뭔가 개성적인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어울린다. 계기반은 클러스터를 실린더처럼 튀어나오게 만들어 독립성을 키웠고, 그 사이에 정보 디스플레이를 배치했다. 대시보드 가운데 상단에는 커다란 8인치 모니터를 마련했고, 모니터 바로 앞에는 오디오 조절 스위치를 뒀다. 센터페시아는 새롭게 디자인한 공조장치 버튼이 자리한다. 스티어링 휠에도 다기능 버튼을 심어놓았다. 전체적으로 버튼이 많은 편인데, 기능별로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어 사용하기 편해 보인다. 버튼과 모니터 터치, 스티어링 휠 버튼 등 다양한 경로로 기능에 접근할 수 있기에 취향에 맞게 익숙해지면 된다. **포드의 특기인 싱크3(SYNC®3)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핵심이다. 3세대로 진화해 모바일 기기 연결성이 좋고 활용도도 높아져서 대다수 사용자가 만족감을 드러낸다.**

공간은 여유나 활용도 모두 수준급이다. 앞뒤 좌석 모두 공간이 여유롭다. 뒷좌석 시트는 폭신함은 유지하면서 얇은 구조라 공간을 덜 차지한다. 무릎과 머리 공간 모두 넉넉히 확보했고, 바닥에 솟아오른 부분을 최대한 낮춰 가운데 좌석에 앉아도 불편하지 않게 했다.





특히 파노라마 루프를 달아 시야가 탁 트인다. 기어 레버를 최대한 앞으로 밀고, 전자식 브레이크를 써서 컵홀더 부분과 센터 콘솔 공간이 넓은 것도 장점 중 하나다. 트렁크 공간은 평상시 456L이고 2열을 접으면 1603L로 늘어난다. 1.7m 길이의 짐도 들어가기에 어지간한 짐은 다 실을 수 있다. 2열은 한 번의 조작으로 접히기 때문에 공간 변형이 수월하다. 트렁크 도어는 범퍼 아래 발을 갖다 대면 열리므로 두 손에 짐을 들고 있어도 쉽게 실을 수 있다.

파워트레인은 2.0L TDCi 디젤엔진과 6단 파워시프트 듀얼클러치 자동변속기가 조화를 이룬다. 이미 이전 모델을 통해 검증된 거친 완성도 높은 조합이다. 최고 출력은 180마력, 최대 토크는 40.8kg·m로 2.0L 중에서는 높은 출력군에 속한다. 높은 토크는 여유로운 가속을 짐작케 한다. 실생활에서 타고 다닐 때 힘의 여유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최대 토크 영역은 2000rpm으로 맞췄다. 파워시프트 6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는 변속이 매끈하고 부드럽기로 정평이 나 있다. 반응이 빠른 TDCi 디젤엔진과 결합해 가속이 더 경쾌하다는 평이다. 패들도 달려 있어 적극적으로 단수를 조절하면 힘찬 가속과 운전의 재미를 경험할 수 있다. 네 바퀴 굴림은 오프로더의 전유물이 아니다. 일반 도로에서도 안정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키가 큰 SUV라면 더더욱 필요하다. 포드 인텔리전트 AWD는 노면 상황에 맞게 구동력을 앞뒤로 배분한다. 경우에 따라 뒤쪽으로 최대 60%의 구동력을 흘려보낸다. 여기에 좌우 토크 배분을 담당해 토크 벡터링을 갖춰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구현한다. 구동력 배분은 계기반 디스플레이로 확인 가능해 차의 움직임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다. 전반적 움직임은 SUV가 아니라 키 작은 차를 타는 듯한 느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유럽 자동차답게 단단하면서 유연한 승차감을 추구한다. 고속으로 달리거나 코너에서는 묵직하게 내리누르는 듯 도로에 달라붙는다는 데 전문 매체의 의견이 대다수 일치한다. 오너들은 평상시에는 유연한 반응으로 승차감이 부드럽다고 말한다. **2017 뉴 쿠파는 장비와 기능에서 고급차를 지향한다. 사각지대 경고, 핸즈프리 테일게이트, 오토 헤드램프 컨트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자동 주차 보조 등 첨단 안전·편의 장비도 가득 담았다.**

SUV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다. 새로운 세그먼트도 생겨나고 차종도 많아지는 등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졌다. 그렇지만 막상 자신에게 맞는 차를 사려면 이런저런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풍요 속 빈곤이다. 2017 뉴 쿠파는 운동 성능과 효율성, 경제성, 실용성, 디자인 등을 두루 만족시킨다. 성격은 보편적이지만 존재 가치는 희소한, 그래서 더 가치 있는 SUV다.

*이 칼럼은 글쓴이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More Smarter, More Safer

2017 뉴 쿠가가 더 똑똑해지고 안전해졌다.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 범위가 넓어졌고, 능동적으로 승객을 보호한다. 보이는 부분은 물론 보이지 않는 부분도 더욱 크게 바뀌었다.

Writer 지현성(자동차 칼럼니스트)

2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Adaptive Cruise Control)

쿠가의 크루즈 컨트롤은 속도는 물론 거리까지 조정한다. 정해진 거리를 맞춰놓으면 앞차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달린다. 스티어링 휠만 잡고 있으면 차가 알아서 달리는 셈이다. 속도 제한 기능과 충돌 완화 시스템을 포함하기 때문에 더욱 능동적으로 안전을 보장한다.

3 오토 헤드램프 컨트롤(Auto Headlamp Control)

어댑티브 바이-레노 HID 헤드램프는 이전보다 훨씬 밝아졌다.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 노면 상태 변화를 감지한 후 상황에 맞게 빔 패턴을 스스로 조정하며, 코너링 시 꺾여 있는 코너 앞을 밝혀 시야를 넓혀준다. LED 주간 주행등은 주변 차에 2017 뉴 쿠가의 존재를 드러내 안전성을 높인다.

1 파워트레인(AWD+2.0L TDCi)

쿠가의 파워트레인은 완성도가 높기로 유명하다. 힘과 효율성 좋은 2.0L 디젤과 인텔리전트 AWD 시스템이 결합한다. 2017 뉴 쿠가의 디젤엔진은 최고 출력 180마력과 최대 토크 40.8kg·m의 강한 힘을 지녔다. 국내 기준으로 복합 연비는 1L에 12.4km로 고연비를 만족시켰다. 인텔리전트 AWD는 실시간으로 도로 상황을 감지해 앞뒤 토크를 적절히 배분, 주행 안정성을 높인다. 코너를 돌 때 속도가 너무 빠르면 속도를 줄이는 커브 컨트롤, 코너에서 안쪽 바퀴에 제동을 걸어 접지력을 높이는 토크 벡터링은 AWD와 함께 차체의 움직임을 안정적이고 부드럽게 유도한다.

4 액티브 파크 어시스트 (Enhanced Active Park Assist)

주차는 초보자든 운전 고수든 스트레스임이 분명하다. 공간이 좁다면 더더욱 그렇다. 2017 뉴 쿠가는 액티브 파크 어시스트(자동 주차 보조) 기능으로 편한 주차를 돕는다. 이전보다 기능을 개선해 평행 주차는 물론 수직 주차도 가능하다. 차 길이와 폭보다 20%의 여유만 있으면 주차가 가능하다. 주차는 차를 세우는 것 못지않게 빠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앞뒤 공간이 좁으면 여간 힘든 게 아니다. 쿠가의 파크 어시스트는 평행 주차 상태에서 빠져나가는 기능도 지원한다. 주차와 빠져나가는 기능 모두 운전자는 지시에 따라 액셀과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기어만 바꾸면 된다.

5 핸즈프리 테일게이트(Hands Free Tailgate)

쿠가는 핸즈프리 테일게이트의 선구로 꼽힌다. 포드는 국내시장에 핸즈프리 테일게이트를 처음 들여왔고, 각 모델에 가장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브랜드다. 쿠가는 국내 데뷔 때 동급 최초로 핸즈프리 테일게이트를 달고 나왔다. 신형 또한 유용한 편의 장비를 이어간다. SUV의 장점은 넓은 트렁크다. 짐을 많이 실을 때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리는 기능은 매우 편하고 유용하다. 두 손에 짐을 들고 있을 때 트렁크 밑에 발을 갖다 대기만 하면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리니 이보다 편할 수 없다.

포드 사륜구동 집중 분석

최근 몇 년 사이 국내시장에서도 네 바퀴 굴림의 인기가 급상승 중이다. 비단 겨울뿐 아니라 계절을 가리지 않고 노면 움켜쥐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이다. 포드는 SUV 모델인 쿡가와 익스플로러가 네 바퀴 굴림 방식이다. 두 차에 들어간 네 바퀴 굴림 시스템의 특징과 장점, 차이점을 소개한다.

Writer 김기범(〈로드테스트〉편집장)

오늘날 SUV의 인기가 뜨겁다. 그 뿌리는 전쟁터의 이동수단이었다. 그런데 SUV의 기원이 된 군용차를 포드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직후 미 육군은 군용차 압찰에 나섰다. 포드와 윌리스 오버랜드(이후 윌리스), 밴텀이 참여했다. 결과는 전부 합격. 그런데 1941년, 미 육군이 세 차종을 하나로 합치기로 결정했다. 행운의 주역은 윌리스였다. 하지만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수요가 빗발쳤다. 결국 생산 규모와 기술력이 빼어난 포드 역시 기회를 거머쥐었다. 포드는 그들의 프로토타입 GP에 윌리스의 W를 붙여 GPW라는 이름으로 선보였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군인과 장비를 싣고 신속하게 누비기 위해서는 사륜구동이 필수였다. 그 전통이 지금의 SUV까지 이어지고 있다.

SUV를 대중적인 히트 상품으로 만든 주역이기도 한 포드는 1980년대 픽업을 기본으로 만든 브롱코2라는 차로 이 시장의 가능성에 눈을 뗐다. 1990년에 선보인 익스플로러는 그야말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그러나 21세기 초, 유가가 오르고

전복 위험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SUV는 위기를 맞는다. 전 세계 자동차 업계는 SUV를 재검토했다. 그 결과 기술력으로 단점을 지우기 시작했다. 가령 뒤집힐 위험을 줄일 전자 장비를 챙겼다. 성격도 다양화했다. 새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였다. 가령 왜건 뺀치게 무게중심이 낮은 SUV, 미니밴에 가까운 SUV, 쿠페처럼 늘씬한 디자인의 SUV, 스포츠카처럼 난폭한 성능과 정교한 핸들링의 SUV를

내놓기 시작했다. 그 결과 SUV는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사륜구동의 역사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자동차의 여명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오랫동안 특수한 목적의 자동차에 제한적으로

썼다. 반면, 이전 불특정 다수가 타는 평범한 차종까지 스며들었다. 비단 겨울뿐 아니라 계절을 가리지 않고 노면 움켜쥐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사이 국내시장에서도 사륜구동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현재 포드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차종 중에는 SUV인 익스플로러와 쿡가가 사륜구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쿡가는

‘인텔리전트 AWD 시스템’, 익스플로러는 ‘인텔리전트 4WD 시스템’으로 명칭한다. ‘똑똑한’이란 이름이 암시하듯 이 시스템은

미끄러운 노면에서 자동으로 접지력과 핸들링 제어 능력을 높여준다. 그래서 어떤 노면이든 가리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다.



익스플로러

포드가 이 시스템에 내건 슬로건은 'Unstoppable(멈추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은 수많은 센서를 거느렸다. 인체에서 오감을 맡은 신경에 비유할 수 있다. 이들 센서는 주행 중 실시간으로 감시의 눈초리를 번뜩인다. 스티어링 휠을 꺾은 각도, 가속페달 밟은 깊이, 각 바퀴의 회전 속도 등 센서가 수집하는 정보만 100여 가지다. 더 놀라운 건 수집의 빈도다. 0.016초마다 이 많은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한다. 눈 깜빡이는 시간보다 20배나 빠른 셈이다. 만약 주행 중 바퀴 중 하나라도 미끄러질 조짐을 보이면 신속하게 뒷바퀴로 노면을 붙들고 자세를 다잡는 데 꼭 필요한 만큼의 구동력을 쏘아준다. 이 과정이 워낙 은밀하고 빨라 운전자는 알 수 없다. 포드의 '인텔리전트 사륜구동 시스템'은 평상시 구동력을 앞바퀴에 '올인'한다. 연료를 최대한 아껴 마시기 위해서다. 바짝 마른 노면에서도 간혹 구동력을 뒷바퀴로 옮기는 경우가 있다. 급가속 때가 대표적이다. 구동력을 네 바퀴에 고르게 나눠 노면 농질 확률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다. 상황에 따라 구동력을 앞 또는 뒤로 100% 몰 수도 있다. 포드는 1995년 익스플로러에 상시 사륜구동(AWD)을 처음 얹었다. 노면 상태와 주행 상황에 따라 운전자가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알아서 구동력을 옮겼다. 하지만 상황 예측 능력과 반응 시간은 오늘날과 비교하면 원시적이었다. 이후 포드는 스웨덴의 할덱스가 만든 사륜구동을 여러 차종에 얹었다. 당시엔 판매 시장별로 각기 다른 사륜구동 시스템을 얹었다. 그런데 2006년 알란 멀렐리가 포드 CEO로 부임해 '하나의 포드' 정책을 펼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다. 판매 지역과 차종별로 다르던 사륜구동 시스템을 하나로 합쳤다. "현재 우린 쿡가 같은 중소형 차종에 두루 얹을 수 있는 하나의 사륜구동 시스템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어요." 포드의 AWD 엔지니어 조 토레스(Joe Torres)의 설명이다. 포드는 이 AWD 시스템을 부품 업체 JTEKT와 함께 개발했다. 생산은 미국 미시간 주 스티어링 하이츠의 포드 액슬 공장에서 맡는다. 부품 업체에서



납품받지 않고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여러 이점을 누릴 수 있다. 가령 매년 신차를 개발할 때마다 AWD 시스템을 직접 튜닝할 수 있다. 조 토레스는 "그래서 더 이상 부품 업체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익스플로러의 '인텔리전트 4WD 시스템'은 쿡가와 하드웨어가 다르다. 그러나 작동 방식은 비슷하다. 평소 앞바퀴로 구동력을 보내다 슬림을 눈치채면 뒤쪽으로 나눈다. 그런데 익스플로러의 사륜구동 시스템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다. '터레인 매니지먼트(지형 관리) 시스템'까지 갖춘 덕분이다. 그 결과 험한 길도 보다 쉽게 누빌 수 있게 되었다. 비장한 이름과 달리 사용 방법은 간단하다. 다이얼을 돌려 해당 지형과 맞는 진흙, 눈, 모래 아이콘을 고르면 차 스스로 최적의 세팅으로 바꾼다. 평소엔 노멀 모드로 다니면 된다. 이땐 대부분의 구동력을 앞바퀴에 집중해 연비와 승차감을 살린다. 노멀 모드에서도 헛바퀴질을 감지하거나 급가속 땀 알아서 뒷바퀴에 힘을 싣는다. 진흙 모드에선 가속페달 조작에 따른 엔진 반응이 한층 공격적으로 변한다. 우물쭈물하다 진창에 빠져 움푹달라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변속기는 기급적 낮은 기어를 물고 버텨 견인력을 극대화한다. 동시에 트랙션 컨트롤을 해제해 바퀴가 무른 노면을 과감히 굽어대며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노련한 오프로드 전문가의 역할을 대신하는 셈이다. 모래 모드에서는 바퀴가 스핀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회전한다. 그래야 모래를 팍팍 파헤치고 전진할 수 있는 까닭이다. 눈길 모드에서 변속기는 꾸물대지 않고 분주히 워단 기어로 갈아탄다. 동시에 구동력이 급격히 치솟지 않도록 엔진도 집중 관리 모드에 들어간다. 구동력이 너무 세면 오히려 쉽게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다이얼과 별도로 마련한 스위치로 '내리막 주행 안정 장치(HDC)'를 켤 수도 있다. 그러면 가파른 내리막에서 운전자는 스티어링 휠 조작에만 집중할 수 있다. '내리막 주행 안정 장치'가 브레이크와 연동해 알아서 속도를 다독이는 까닭이다. 다시 가속페달을 밟으면 곧바로 해제되고,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면 곧장 알아서 브레이크를 걸어 속도를 줄인다. 포드 사륜구동 시스템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사용자 편의성을 들 수 있다. 익스플로러의 '인텔리전트 4WD 시스템'과 쿡가의 '인텔리전트 AWD 시스템' 모두 계기판 정보창의 그래프를 통해 구동력 옮기는 현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작동이 워낙 은밀하고 자연스러워서, 뻔히 눈으로 보고 있지만 피부엔 와 닿지 않는다. 이런 게 기술력이다.



2017 뉴 쿡가

*이 칼럼은 글쓴이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Global SUV Kingdom

SUV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른다. 이미 SUV 라인업을 충실하게 갖춘 브랜드는 느긋하게 이 상황을 즐긴다. 포드는 예부터 SUV 라인업이 강세를 보였다. 요즘 같은 SUV 전성시대에 가장 주목받는 브랜드 중 하나다.

Writer 임유신(자동차 칼럼니스트)



새롭게 중무장한 2017 뉴 쿠가

SUV 전성시대다. '만들기만 하면 팔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SUV의 인기는 하늘을 찌른다. 크기와 종류 가리지 않고 상승세다. SUV 천국인 미국은 2018년 전체 자동차 판매의 40%를 SUV가 차지한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왜 SUV가 인기일까? 예전에는 SUV와 세단의 경계가 확실했다. 차 높이나 용도 등이 확연히 구분됐다. 지금은 경계가 모호해졌다. SUV의 단점은 주로 큰 키에서 비롯되는데, 대체로 안정성·승차감·운동 성능·효율성 등이 세단에 비해 떨어진다. 기술 발달로 단점을 극복하면서 요즘 SUV는 세단과 별반 다를 바 없어졌다. 여기에 공간 활용성까지 좋으니 세단보다 더 매력적인 존재가 됐다. SUV 인기가 높아지면서 너도나도 SUV 시장에 뛰어들다. SUV가 없던 브랜드도 '브랜드 최초'라는 수식어를 덧붙여 전에 없던 SUV를 내놓고 있다. SUV 라인업이 탄실한 브랜드는 느긋한 입장이다. 포드도 그중 하나다. **우리나라에서 포드는 세단과 SUV를 함께 만드는 복합 브랜드로 알려져 있다. 국내 판매 차종은 세단 계열인 토러스(세단), 몬데오(세단), 포커스(세단, 해치백), 머스탱(쿠페)과 SUV 계열인 익스플로러와 퓨전으로 나뉜다.** SUV 익스플로러가 잘 팔리기는 하지만, 라인업에서 세단 계열 비중이 크다 보니 세단에 치중하는 브랜드로 인식된다. **시각을 세계시장으로 넓히면 포드가 달라 보인다. SUV가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 SUV 비중이 높아진다. 미국만 해도 SUV(크로스오버 포함)는 이스케이프, 엡지, 플렉스, 익스플로러, 엑스퍼디션으로 종류가 늘어난다. 픽업까지 합치면 더 많다. SUV 왕국이라 부를 만하다. 종류만 많은 게 아니다. 익스플로러는 미국 SUV의 대명사로 통한다. SUV 전문 브랜드는 아니지만 이미 1965년에 브롱코라는 SUV를 선보였다. SUV 역사만 50년이 넘는다. 유럽이나 기타 지역에서도 포드 SUV의 인기는 높다. 세계시장이 포드 SUV의 주 무대다.**

1 Korea

시장 특성

'차=세단'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전통적으로 세단이 인기다. 해치백이나 왜건이 세단의 기세에 눌려 비인기 차종 취급을 받는 것과 달리 SUV는 주력 차종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들어 레저 문화가 발달하면서 SUV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2000년대 초·중반만 해도 SUV의 종류가 많지 않았지만, 최근 SUV 인기가 높아지고 수입 차종이 확대되면서 SUV 차종이 늘었다. 연비와 토크 때문에 무겁고 큰 SUV는 디젤엔진을 얹어야 한다는 사실이 상식으로 통한다. SUV의 대부분은 디젤이지만 포드 익스플로러처럼 일부 차종에 한해 가솔린 SUV도 인기가 높다.

포드 SUV 모델

익스플로러 국내 포드 판매를 이끌고 있는 인기 차종이자 한국 수입차 시장 전체에서도 베스트셀링 모델 중 하나.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SUV로 국내에서도 인지도가 높다. 큰 차체와 카리스마 넘치는 디자인이 매력 포인트. 가솔린엔진임에도 디젤엔진 SUV 못지않은 인기를 누린다. **쿠가** 보편적인 듯하면서 희소성이 높은 콘셉트. 이만한 크기에 네 바퀴를 굴리고 디젤엔진을 얹은 유럽산 수입 SUV는 은근히 찾아보기 어렵다. 유럽에서는 콤팩트 SUV 판매 탑 5 안에 드는 인기 차종이다.

2 America

시장 특성

크고 실용적인 차에 대한 관심이 많다. 우리 시각에는 짐차로 보이는 픽업 같은 차가 가장 잘 팔리는 시장이다. SUV는 오래전부터 인기가 많았다. 가족 구성원이 차 한 대씩은 있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탈 수 있는 차가 필요하다. 예전에는 미니밴이 그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SUV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실용성 높은 왜건도 한때 인기였지만 SUV에 밀려 예전만 못하다. 미국 SUV는 대부분 가솔린이고 덩치가 크다. 한국 시장의 대형급이 미국에서는 중형급 취급을 받는다. 미국 시장도 기름 값이 오르고 효율성 높은 차를 찾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소형 SUV도 시장을 점차 넓히고 있다.

포드 SUV 모델

이스케이프 쿠가의 미국판이라고 보면 된다. 유럽에서 생산하는 쿠가와 달리 이스케이프는 미국에서 만든다. 쿠가와 달리 미국 시장에 맞게 가솔린 파워트레인을 얹는다. 이스케이프는 한때 미국 콤팩트 SUV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한 인기 차종이다. **엡지** 이스케이프와 익스플로러 사이에 위치하는 차종. 세련된 디자인과 2.7L 에코부스트 엔진, AWD 등 SUV 본질에 충실하면서 패밀리 SUV의 특성을 잘 살린 모델이다. **플렉스** 미국에서 파는 포드 SUV는 모두 알파벳 'e'로 시작한다. 플렉스(Flex)는 이름에서부터 순수 SUV 라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대형급 박스형 크로스오버라는 독특한 콘셉트로 개성이 아주 강한 차다. **익스플로러** 포드 SUV를 대표하는 동시에 미국 SUV의 상징인 모델. 1990년 처음 등장해 27년째 굳건한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있다. 현재 모델은 5세대이고 페이스리프트 모델까지 나왔다. **엑스퍼디션** 국내에서는 낯선 초대형급 SUV. 미국 시장에서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차종이다. 길이는 5.6m, 휠베이스는 3.32m로 미니밴보다 크고 길다. 공간 활용 면에서 따라올 차가 없다.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SUV로 국내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익스플로러



대형급 박스형 크로스오버 플렉스



유럽 포드 SUV의 최고 트림인 비날레



미국은 물론 유럽에서도 사랑받는 엿지

3 Europe

시장 특성

유럽은 작은 차가 인기가. 도로가 좁은 데다 실용적인 차를 선호하는 소비자 특성 때문이다. 대부분 차는 우리나라 준중형급인 C 세그먼트 이하 해치백이다. 공간을 활용하거나 레저를 즐기는 차로는 왜건이 인기가. 덩치 크고 효율성 낮은 SUV는 시장에서 그리 인기가 많지 않았다. SUV 열풍은 유럽도 비껴가지 않았다. 각 차종의 장점을 모은 SUV의 매력에 유럽 시장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급기야 2015년에는 SUV 세그먼트가 유럽 시장 판매 1위를 차지했다. 시장 특성상 주로 콤팩트급이 인기가. 효율성 높은 차를 선호하는 분위기 때문에 대부분 디젤이다.

포드 SUV 모델

쿠가 최근 페이스리프트를 거쳐 좀 더 세련된 모습으로 바뀌었다. 더불어 포드의 정체성을 살린 디자인을 입혀 아이덴티티가 더욱 강화됐다.

엿지 쿠가의 바로 윗급 모델. 유럽 시장에서는 익스플로러를 팔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SUV 라인업에서는 엿지가 가장 위에 선다. SUV 특유의 강인하고 다부진 스타일이 돋보인다.

비날레 비날레(Vignale)는 모델명은 아니다. 럭셔리 트림에 붙는 이름이다. SUV 중에는 쿠가, 엿지 등에 비날레 트림을 둔다. 그릴 등 디테일한 부분의 디자인을 달리하고 고급 소재를 써서 럭셔리 라이벌에 대항한다. 비날레만의 서비스를 두는 등 서비스도 차별화한다.

기타 소형 SUV 에코스포츠(아시아 부분에서 소개)와 SUV는 아니지만 MPV인 S-맥스와 갤럭시 등 다양한 SVU&RV 라인업을 갖췄다.

4 Asia

시장 특성

최근 중국은 세계 최대 시장으로 떠올랐다. 지난 2016년 상반기, SUV가 큰 인기를 얻으며 전년보다 판매량이 44%나 늘었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커지는 시장이다. 인도 역시 SUV가 증가 추세다. 인도 시장에서 지난 10년 동안 성장률이 가장 빠른 차종은 SUV다. 현재 월평균 5만 대 수준이고 2020년에는 연간 100만 대 이상 팔릴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SUV와 픽업 등이 인기가. 도로 상태가 불량하고 상습 침수되는 곳이나 험로가 많아 오프로드 주파력이 좋은 차가 인기를 끈다. 대중교통 수단 부족과 대가족 문화도 일반 승용차보다 SUV를 선호하는 이유다.

포드 SUV 모델

에코스포츠 포드 SUV 중에서 가장 작은 B 세그먼트 모델. 유럽·인도·중국·남미 등을 주 무대로 한다. 2012년 첫선을 보였고, 2015년 페이스리프트를 거쳤다. 전 세계에서 큰 성공을 거둔 포드의 효자 모델이다.

에베레스트 익스플로러의 해외판이라고 보면 된다. SUV 특유의 강인한 이미지를 살렸고 험로 주파력을 키우기 위해 오프로드 성능을 강화했다. 2015년에는 3세대 모델이 등장했다.

*이 칼럼은 글쓴이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터프한 면모가 돋보이는 에베레스트



소형 SUV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에코스포츠

Smart Interface

포드를 대표하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싱크(SYNC®)가 3세대로 진화했다. 성능을 업그레이드했고, 모바일 기기 인터페이스와 유사하게 다듬어 사용이 더욱 편리해졌다.

Writer 지현성(자동차 칼럼니스트) Photographer 류창렬



자동차는 제2의 주거 공간이다. 상당한 시간을 차 안에서 보낸다. 자동차를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한다면 그 시간은 더 길어진다. 이동에 초점을 맞춘다면 앓을 시트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주거 개념이 들어가면 자동차 안은 집과 같아야 한다. 집 안에서 여러 활동을 하듯, 차 안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자동차 회사들은 이 경험을 좀 더 편하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연구한다. 집과 달리 움직이는 차 안에서 활동이 이뤄져야 하기에 더욱 치밀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한다.

싱크(SYNC®)는 포드가 만든 자동차 경험의 정형화된 틀이다. 차 안에서 운전자가 하는 각종 행동 유형을 방향성을 정해 일관된 모습으로 통일했다. 좁게 보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국한되지만 범위를 넓히면 자동차의 기능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쉽게 말하면 싱크는 운전석에서 자동차를 다루는 방식이다. 싱크로 기능에 접근하는 방식은 두 가지인데, 음성인식과 터치다. 음성인식은 말 그대로 음성을

통해 기능을 제어한다. 음성인식은 예전부터 자동차를 비롯해 산업 여러 분야에서 쓰였기 때문에 새롭지는 않다. 하지만 자동차에서는 가치가 더 높다. 달리는 중에는 두 손이 자유롭지 못하다. 기능을 조작하려면 손을 써야 하는데, 스티어링 휠에서 한 손이라도 떼는 순간 사고 위험은 높아진다. 예를 들어, 센터페시아 스위치를 누르려면 한 손을 써야 하고 시선도 정면에서 벗어난다. 잠깐이라 해도 차가 빨리 달리는 상황에서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 음성인식이 진가를 발휘한다. 요즘은 자동차의 기능이 다양하고 복잡해졌다. 음성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일도 그만큼 많아졌다.

터치는 모바일 시대를 대표하는 기능 실현 방식이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에 주로 쓰는 방식이 자동차에도 쓰인다. 과거에는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가 고가 옵션이었다. 기능도 단순한 보여주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요즘은 다르다. 디스플레이가 필수로 자리 잡았고, 그 안에서 수많은 기능 조작이 이뤄진다. 주로 터치 방식이다. 포드는 터치 디스플레이를

오래전부터 적극 도입했다. 모바일 시대 생활양식을 빠르게 자동차에 도입하고 자동차에 적극 확산시켰다. 1세대 싱크는 2007년에 처음 선보였다. 2세대는 '마이 포드 터치' 개념을 집어넣어 2010년 CES에 공개됐고 2011년 SUV 모델 엣지에 처음 쓰였다. 지속적으로 개선 작업을 거쳐 발전해온 싱크는 **2014년 말 3세대로 진화했다. 싱크3는 중대한 변화를 겪었다.** 1, 2세대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소프트웨어를 썼지만 3세대부터는 블랙베리의 QNX 시스템을 집어넣었다. 싱크3 개발을 위해 **포드는 개발 과정에 2만2000명에 이르는 고객을 상대로 시장조사를 하기도 했다. 그만큼 사용자 환경 개선에 공을 들였다. UI가 싹 바뀌었고 시스템 속도는 빨라졌다. 음성인식의 정확도 또한 높아지고 터치 반응도 스마트폰과 비슷한 수준으로 자연스러워졌다.** 싱크3는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각 모델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국내 판매 모델도 싱크3를 달고 나온다. 현재 몬데오·익스플로러·머스탱에 싱크3가 들어간다. 앞으로 들어오는 모델은 모두 싱크3를 적용한다.

포드 몬데오 싱크3 체험기

싱크2와 싱크3는 어떻게 다를까? 직접 체험해보니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확 바뀌었다. 우선 UI가 달라졌다. 이전에는 4분할 화면에 여러 색상을 써서 아기가자하고 화려한 분위기였다. **싱크3는 단색 톤에 3분할 구성이고 아래쪽에 작은 메뉴를 배치했다. 간결하고 깔끔할 뿐 아니라 그래픽도 선명하다.** 3분할 메뉴는 왼쪽이 오디오, 오른쪽이 위아래로 각각 나침반과 연결 기기를 표시한다. 아래쪽에 작게 나란히 배치한 작은 메뉴는 오디오·공조장치·전화·앱·세팅으로 나뉜다. 오디오와 공조장치 메뉴는 자동차 메뉴 구성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시인성 좋게 버튼이나 숫자를 크게 배치해 사용이 편리하다. 전화와 세팅 메뉴를 들어가면 모바일 기기 분위기를 물씬 풍긴다. 각각의 메뉴를 엮처럼 배치해 마치 태블릿 화면을 보는 듯하다. 각 메뉴 아이콘은 텍스트와 더불어 아이콘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기능이

눈에 잘 들어온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싱크를 통해 할 수 있는 기능은 꽤 많다. **멀티미디어 활용은 물론 전화나 공조장치, 자동차 세팅 등 세세한 기능도 싱크를 통해 조절한다.** 디스플레이가 전압식에서 정전식으로 바뀌어 반응이 매끈하고 빠르다. 대부분 기능을 디스플레이를 통해 하기 때문에 화면 이동이 잦을 수밖에 없는데, 메뉴 버튼을 누르거나 여러 페이지로 구성된 화면에서 화면 간 이동이 부드럽고 신속하다. 지체하거나 버벅거리지 않고 매끈하게 작동한다. 스마트폰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보면 될 정도다. 스마트폰 연결성은 우수하다. USB나 블루투스를 이용해 연결하는데 기기 검색은 물론 연결도 빠르다. 접속이 되면 연락처 정보가 시스템으로 복사된다. **전화기 메뉴에 들어가면 스마트폰 다루듯이 전화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가장 환영할 기능은 애플 카플레이다(안드로이드 오토도 기능은 들어 있다). 아이폰을 연결하면 아이폰의 기능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전화·문자·음악·동영상·지도 등을 스마트폰**

메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터치는 물론 음성 기능인 시리를 통할 수도 있다. 애플 카플레이가 아니더라도 싱크3는 음성인식 기능을 포함한다. 운전하면서 스티어링 휠에 달린 음성인식 버튼을 누른 후 대화하듯 말하면 된다. 라디오 주파수를 조절하거나 온도 설정, 연락처 검색 등 여러 기능이 음성으로 구현된다. 와이파이에 연결 가능하다. 스마트폰에서 와이파이를 찾아 연결하듯 연결 메뉴에 뜬 신호를 누르면 와이파이에 접속된다. 시스템 업데이트를 비롯해 여러 기능이 와이파이를 통해 구현된다. 통신망으로도 연결해 각종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국가마다 적용 여부는 차이가 있다. 자동차 내 사용자 경험은 개성과 특색을 갖춰야 하지만, 그전에 편리하고 익숙해야 한다. 포드 싱크는 3세대를 거치며 익숙해졌고, 특히 최신 싱크3는 일상의 모바일 인터페이스와 유사해져 더욱 편리해졌다. 자동차 밖에서는 물론 안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이뤄지기에 거부감이 덜하고 자연스럽다.

*싱크3 기능은 글로벌 모델 기준으로 작성되어 일부 기능 및 사진은 국내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칼럼은 글쓴이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Go Camping with Explorer

지난 2016년 10월, 500명이 넘는
포드 익스플로러 오너 가족들이 강원도
웰리힐리파크 캠핑장에 모였다. 그들과 함께한
1박 2일의 다이내믹한 가을 캠핑 스케치.

Editor 박성미

지난 2016년 10월 초, 포드 코리아는 거친 오프로드를 달리는 쾌감을 만끽하는 동시에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룻밤 보내는 캠핑 이벤트를 진행했다. 'Ford Explorer Possibilities Event'라는 타이틀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2016년 10월 1~2일, 8~9일 두 차례에 걸쳐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웰리힐리파크 오토캠핑장에서 열렸다. 익스플로러 보유 고객 중 이벤트에 당첨된 130여 팀이 토요일 오전 10시를 전후로 하나둘 도착했다. 먼저 온 순서대로 캠핑 사이트를 선택해 텐트를 치고 점심을 먹었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오프로드 어드벤처' 체험으로 준비한 다섯 대의 익스플로러 2.3 에코 부스터를 타고 총 다섯 개의 코스를 주행하는 프로그램이었다. 1번 코스는 20도 경사면으로 된 오르막 코스로, 사각지대인 정면을 차에 장착된 180도

카메라를 통해 확인하며 주행하면 된다. 2번 코스는 20도 이하의 경사면으로 된 하강 코스로, 힐 디센트 컨트롤을 작동해 속도를 지정하면 정해진 속도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다. 3번 코스는 보다 다양한 코스를 통해 4WD를 체험하는 원 슬라이드 코스, 4번 코스는 차량 바퀴 중 최소 한 개에서 두 개는 지면에서 떨어진 채로 주행하는 고난도 4WD 시스템 체험 코스다. 마지막 5번 코스는 지형 관리 시스템(TMS)의 다이얼에 표기된 모래와 진흙 코스를 달리는 것이다. '오프로드 어드벤처' 참가자들은 처음엔 기본 주행 성능으로, 그다음엔 각 기능에 맞게 설정된 주행 성능을 각각 체험했는데, 주행 느낌이 확 달라졌으며 모두 놀라는 모습이었다. "이런 시승은 처음이었어요. 오프로드를 운전해본 경험도 거의 없으니까요. 언덕을 내려갈 때 속도를 제어해주는 게

제일 맘에 들어요. 내리막길에서 차에 속도가 붙으니 은근히 겁이 났는데, 이 기능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게다가 전문가로 구성된 인스트럭터들이 조수석에 동행한 덕분에 익스플로러의 기능을 충분히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평도 많았다. "1코스에서 경사 구간이 30도 높이가 되다 보니 운전석에서는 하늘만 보여 살짝 당황했는데, 이때 전방 카메라가 아주 유용했어요. 진흙길이나 모래 코스 또는 아주 심하게 팬 길도 힘차게 달려나가는 익스플로러를 직접 체험해보니 애정도 더 생기고 낯선 길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어요." 아빠들이 '오프로드 어드벤처' 체험에 참여하는 동안, 나머지 가족들은 포드 익스플로러 모형의 종이 자동차를 조립하는 '페이퍼 자동차 DIY', 달고나 만들기와 옛날식 보드게임 등 어린 시절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추억의

문방구', '핸드메이드 소이 캔들 만들기', 캠핑장 곳곳에 숨겨진 쪽지를 찾아 선물을 받는 '보물찾기' 등 각종 프로그램에 참석해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막을 내리고 참가자들은 포드코리아에서 준비한 BBQ 세트와 저녁식사를 마치고 캠핑의 마무리인 버스킹 공연과 러키드로 시간을 가졌다. 소니 미니빔 프로젝트, 콜맨 타프와 아이스박스 등 푸짐한 선물이 준비되었다. "캠핑을 좋아하다 보니 결국 익스플로러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텐트 앞에 주차된 차량이 모두 같아 여느 캠핑과 다른 끈끈한 소속감마저 느낄 수 있었던 이날 저녁, 참가자들은 늦은 밤까지 SUV를 언급하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익스플로러는 잘 포장된 도로를 주로 달리지만, 어디든 갈 수 있는 '탐험가'라는 이름처럼 본질적으로

거친 오프로드를 달리기 위해 만들어진 차다. 자신의 태생을 잊지 않으려는 듯 다이얼로 지형에 따른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를 지형 관리 시스템(Terrain Management System™)이라 한다. 총 네 가지 모드를 제공하며 눈길, 빗길, 자갈길, 모래길, 진흙길 등 노면 상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여기에 힐 디센트 컨트롤이 추가돼 내리막길에서도 브레이킹 없이 주변 지형에만 신경 쓰며 운전할 수 있다. 점점 SUV를 다양한 지형에서 이용하며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기는 우리나라의 레저 상황에 딱 맞는 기능이다. 덩치 큰 SUV의 장점 중 하나는 압도적인 사이즈의 내부 공간으로, 캠핑을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특히 운전자를 포함해 3열까지 모든 좌석에 동반자가 탑승해도 594L에 달하는 적재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캠핑족에게 매력적인 자동차임에 분명하다.

추운 겨울, 몬데오와 활력 충전

겨울은 생명 활동이 둔해지고 마음마저 황량해지는 계절이다.
황량함은 황량함으로 극복해야 하는 법. 몬데오와 함께 오지를
달리다 보면 몸과 마음이 어느새 활력으로 채워진다.

Writer 지현성(자동차칼럼니스트) Photographer 류창렬

쌀쌀해지는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추워지는 겨울이 되면 왠지 마음이 차분해진다. 뭔가 문제 있듯이 표현하면 우울증이고, 그럴듯하게 포장하면 계절적 정서 장애다. 햇빛이 별로 없는 데다 온도가 낮아져 활동량이 줄어들어서 그렇다는 게 정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이유다. 가을과 겨울에 걸쳐 근 반년에 이르는 기간을 축 쳐진 채 지낼 수는 없는 법.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처럼 추위도 기를 쓰고 밖으로 나가는가 보다. 황량하기 그지없고 살을 에는 듯한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 겨울 바다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것도 마음속 깊이 자리한 '자발적 극복'에서 비롯된 행동 방식이다. 가지만 양상하게 남은 등산로를 오르는 일도 같은 맥락이다.

황량함에서 위안을 얻는다? 어차피 생명 활동이 잦아드는 겨울에는 주변에서 활력 넘치는 자연을 마주하기 힘들다. 부정과 부정이 만나면 강한 긍정이라 했고, '오랑캐는 오랑캐로 무찔러야 한다(이이제이, 以夷制夷)'고 했다. 황량한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좀 더 황량한 곳에 자신을 내던져야 한다. 겨울을 겨울답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강원도는 겨울이 빨리 찾아오고 산이 많아 분위기도 더 스산하다. 포드 몬데오를 타고 차도 없고 사람도 없는 곳으로 방향을 틀었다. 황량함의 강도를 더해 좀 더 활력 넘치는 기운을 회복하기 위해... 목적지로 잡은 곳은 정선. 정확히 말하면 영월 지나 정선에 이르는 길이다. 정선은 관광지로 유명하다. 관광지 개발도 많이 해서 볼거리나 즐길 거리가 많다. 황량함과과는 거리가 좀 멀다. 그렇지만 산이 높으면 계곡도 깊고 그림자도 긴 법이다. 이름이 알려진 정선 바로 근처에는 오지의 고요함과 적막이 내려앉은 동네들이 띄엄띄엄 자리를 잡고 있다.

출발점은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에미 교차로다. 서울에서 고속도로와 국도를 타고 달리고 또 달렸다. 연비는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적재량 및 정비 상태, 온도에 따라 다르지만 디젤엔진을 얹은 몬데오는 정속 주행 연비가 1L에 22km에 이를 정도로 잘 나온다. 출발점까지 200km 넘게 달렸는데 기름을 가리키는 바늘은 한 칸밖에 내려가지 않았다. 왠지 기분 좋은 여정이 될 것 같다.



영월에서 동쪽으로 31번 국도를 타고 가면 석항역 부근에서 38번 도로로 이어진다. 조금만 더 가면 예미 교차로가 나오는데, 좌회전해 동강로로 접어들면 오지의 세계가 펼쳐진다.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기 십상이다. 이 길을 쫓 따라가다 보면 정선에 도착한다. 목적지가 같다고 해도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잘 닦인 38번과 59번 국도를 타고 정선에 가는 길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좁은 길을 따라 조금 가다 보면 구불구불 산길이 나온다. 지도상에도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무명 고개다.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해발 600m의 고지다. 단풍도 다 져서 행하지만 푸른 하늘과 샛노란 아침 햇살이 단풍이 떨어진 가지 사이사이를 그득하게 채운다.

몬데오는 2.0L 디젤엔진을 얹는다. 최고 출력 180마력, 최대 토크 40.8kg·m다. 토크가 좋아 산길 와인딩을 가뿐하게 올라간다. 6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는 스티어링 휠에 달린 패들로도 조작할 수 있다. 와인딩에서 단수를 조절할 때 패들을 쓰니 참 편하다. 유럽 감성 충만한 하체 덕분에 스티어링 반응도 정교하고 핸들링도 짜릿하다. 구불구불한 길에서도 절도 있고 안정감 넘치게 돌아나가는 맛이 꽤 만족스럽다. 산을 통째로 휘감고 도는 길이 나만의 세상이다.

고개 초입에는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만한 터널이 있다. 고개 저쪽 끝으로 연결하는 지름길이다. 길이가 긴 편이라 반대쪽 출구가 점으로 보인다. 초입에서 반대편 차 불빛이 보이지 않음을 확인하고 들어가면 된다. 상수도 관리를 위해 뚫었지만, 지금은 차도로 쓰인다. 터널 때문에 무명 고개에는 지나가는 차가 더 없다. 그나마 뚫한 통행마저도 터널이 흡수해 굵이 굵이 산길에는 고요만이 커켜이 쌓여간다.

산길을 지나 평지를 좀 달리면 예미초등학교 고성분교장이 나온다. 낡았어도 번듯한 학교 건물은 인적이 끊긴 지 오래다. 안내판이 2013년 3월 1일에 문을 닫았다고 알려준다. 교정 한편을 지키는 나이가 수백 년은 돼 보이는 커다란 나무는 아이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고마운 존재였을 터. 아이들의 온기가 더 이상 닿지 않아서일까. 페인트가 들고 일어난 놀이기구가 쓸쓸함을 더한다.

인적 끊긴 산골 폐교와 현대적 조형미가 돋보이는 몬데오가 묘한 대조를 이룬다. 과거와 현재, 시골과 도시, 건축물과 자동차, 자연과 기계... 성격은 상반되지만 한 시대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둘은 하나가 된다.

고성분교에서 조금만 더 가다 오른쪽 길로 들어서면 동강전망자연휴양림으로 향하는 산길이 나온다. 해발 600m 고지에 동강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와 오토캠핑장을 지어놨다. 올라가는 길은 만만치 않다.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은 구불구불한 경사로를 2km 넘게 달려야 한다. 다행히 말끔하게 새로 닦아놔서 나름대로 운전 재미와 짜릿한 스릴을 느낄 수 있다. 길이 워낙 좁아 마주 오는 차를 어떻게 피할지 불안한 마음도 스릴을 더한다. 몬데오의 탄탄한 하체와 정교한 핸들링은 무명 고개에 이어 이곳에서 더 빛을 발한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파른 와인딩 경사로를 지치는 기색 없이 힘차게 올라간다.

1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동강 2 동강전망휴양림으로 올라가는 길은 좁고 구불구불해서 몬데오의 진가를 제대로 느낄 수 있다. 3 폐교지만, 쉬는 시간 종이 올리면 아이들이 뛰어날 것만 같다.



정상에 오르니 오토캠핑장이 보인다. 이런 곳에 오토캠핑장이 있을 줄이야. 공기 좋고 전망 좋은 곳에 오르니 몸도 마음도 절로 상쾌해진다. 장비만 있다면 당장 몬데오를 세워놓고 하루나 이틀 머물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진다. 캠핑장 한쪽 시야가 가장 탁 트인 곳에 자리 잡은 나리소전망대에 오르면 아래로는 동강이, 맞은편으로는 해발 883m의 백운산이 한눈에 잡힌다. 고생 끝에 찾아온 보람(물론 몬데오 덕분에 편하게 올라왔지만)이란 게 이런 걸까? 오지 탐험 끝에 신세계를 발견한 기분이다. 전망대에서 내려와 다시 정선으로 향한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왼편에 동강이 함께 달린다. 굽이치는 동강의 흐름에 따라 길 또한 굽이쳐 뻗어나간다. 낡은 시멘트 도로와 최근 손본 듯한 아스팔트,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만한 좁은 길과 두 대는 그럭저럭 다닐 수 있는 곳 등 상태도 제각각이다. 눈앞에 펼쳐지는 동강과 맞은편 절벽이 어우러진 풍경에 취하면 길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진다. 차 안에 있었기에 더 그럴지도 모른다. **몬데오는 유럽 감각으로 하체를 단단하게 단련했지만 부드러움을 동시에 살렸다. 자세는 잘 잡되 진동 처리가 깔끔하다. 오래 달려도 편하고 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도 피로가 덜하다. 자세를 잘 잡아주면서 포근한 시트도 편안한 승차감에 한몫한다. 몬데오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16 자동차 안전도 평가’에서 종합 최고등급을 받았다. 안전하다는 믿음이 승차감을 더 아늑하게 하는 요소라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 없다.**

강과 계곡은 푸른 여름이 좋겠지만, 이미 줄 것은 다 줘버린 원초적 모습도 은근히 정겹다. 차에만 있다가는 절경을 놓칠새라 잠시 차에서 내려 동강의 물 기운에 몸을 맡긴다. 물소리와 튀어오르는 물방울이 만들어내는 미세한 입자가 상쾌하게 얼굴에 와 닿는다. 겨울이지만 수량은 제법 많고 잔잔히 흐르는 듯하지만 흘러가는 소리가 예사롭지 않다. 겨울은 침묵의 계절이 아니라고 외치듯 물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멀리 퍼져나간다.

길을 따라가는 동안 마을은 뜸하게 모습을 드러낸다. 웅기종기 몇 채만 드문드문 모여 있다. 차가 다니는 길이 이 정도 뚫려 있으니 오지는 아니겠지만, 도시인의 시각으로 보면 오지 중의 오지다. 강은 이편과 저편으로 나뉜다. 같은 오지 안에서도 다리를 사이에 두고 더함과 덜함이 차이가 난다. 간간이 모습을 드러내는 다리는 이편과 저편을 연결하는 생명의 끈이다. 다리를 통해 저편과 이편을 오가는 기분이 묘하다. 강변 드라이브는 솔치삼거리 부근에서 끝을 맺는다. 그곳에서 조금만 더 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선이 나온다. 30km 남짓한 동강 길을 1시간여 달렸다. 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천천히 달린다고 뭐라 할 사람도 없다. 눈치 보지 않고 경치 구경하면서 느긋하고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다. 인적이 없는 곳, 차도 없는 곳, 고요함과 적막함이 가득한 동강 길은 시간의 터널 같다. 몬데오라는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간을 초월한 긴 여정을 보냈다. 시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내 자신의 위치와 시간은 그대로지만, 기억 속에는 경험과 여운이 더해진다. 황량하기 그지없는 오지는 그렇게 마음속 황량함을 활력으로 바꿔놓았다.



*이 칼럼은 글쓰이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Bling Bling Hong Kong

화려한 불빛, 북적이는 사람들, 낭만적인 로맨스...

연말연시가 되면 홍콩의 거리 곳곳은 더욱 활기가 넘친다. 한겨울의 축제가 펼쳐지며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풍성한 홍콩은 지금 새해를 맞는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하다.

Editor 김민정 Cooperation 홍콩 관광청 한국사무소(02-778-4643)

참고 서적 《처음 홍콩에 가는 사람이 가장 알고 싶은 것들》 김인현 저, 원앤원스타일 출판





1 홍콩은 매년 새해를 맞이하는 카운트다운과 함께 엄청난 양의 폭죽, '심포니 오브 라이트' 레이저 쇼를 펼쳐며 화려한 한 해가 시작됨을 기념한다.
2 쇼핑의 왕국인 홍콩의 쇼핑객들은 서로 경쟁하듯 멋진 장식과 이벤트로 그 화려함을 뽐내 설렘과 기대가 가득한 연말연시 분위기를 완성한다.

다채로운 홍콩 겨울 축제

1년 내내 볼거리가 넘쳐나는 홍콩이지만, 그중에서도 연말연시는 더욱 흥겹고 활기차다. 호텔과 레스토랑에서는 특별한 날을 위한 예약이 줄을 잇고, 이벤트와 볼거리가 가득한 '홍콩 겨울 축제'가 시작된다.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더 스태추 스퀘어(The Statue Square)'의 대형 트리도 모습을 드러낸다. 홍콩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센트럴에 위치한 더 스태추 스퀘어는 19세기에 지은 시민 광장으로 홍콩의 상징적인 빌딩에 둘러싸인 유서 깊은 장소다. 이곳에 설치되는 대형 트리는 홍콩

크리스마스의 정수를 제대로 느끼게 한다. 지난 12월 2일 점등식을 시작으로 '사랑의 자물쇠'를 장식하는 이벤트와 함께 산타클로스와의 만남은 물론 클래식한 캐럴이 울려 퍼지는 행사는 2017년 1월 1일까지 계속된다. 쇼핑 천국인 홍콩답게 쇼핑몰은 경쟁이라도 하듯 멋진 크리스마스 장식과 이색적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랜드마크 쇼핑몰은 대형 서커스단을 모티브로 역동적 디스플레이를 완성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코즈웨이 베이 타임스퀘어에서는 눈이 내리지 않는 홍콩에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공 눈을 뿌린다. 프랑스 전문가들을

초빙해 만든 눈으로 눈싸움과 눈사람을 만들 수 있도록 특별한 이벤트 공간을 마련하는 것. 무엇보다 이번 홍콩 겨울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침사추이(Tsim Sha Tsui)'에서 매일 밤 펼쳐지는 3D 라이트 쇼다. '홍콩 문화센터(Hong Kong Cultural Centre)' 벽면을 무대로 귀여운 크리스마스 요정 에디(Eddie)와 요정들의 모험 이야기를 3D 라이트 쇼와 함께 감상할 수 있다. 홍콩 문화센터의 광장 뒤쪽으로는 센트럴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지고, 바다에 떠다니는 페리를 구경할 수 있어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끽하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다. 전 세계 클러버들에게 사랑받는

'란콰이퐁(Lan Kwai Fong)'에서는 거리 축제와 크고 작은 이벤트가 펼쳐진다.

황홀하게 맞이하는 새해

새해를 화려하게 맞이하는 홍콩은 새해 첫날과 중국의 설날인 춘절이 되면 전국에서 엄청난 양의 폭죽을 터뜨리며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것을 기념한다. 1000여 년 전부터 시작된 폭죽 터트리기는 액운을 쫓고 복을 불러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카운트다운과 함께 1월 1일 0시가 되면 '침사추이' 해변 산책로와 '스타의 거리(Avenue of Stars)'에서 폭죽과 함께

레이저 쇼 '심포니 오브 라이트(A Symphony of Lights)'가 펼쳐진다. 매일 오후 8시에 진행되는 '심포니 오브 라이트'지만 이날은 특별히 그 어느 때보다 성대하게 형형색색 레이저로 빔하늘을 수놓는다. 어깨가 들썩이는 음악에 맞춰 시작되는 레이저 쇼는 홍콩섬과 카오룽 반도의 건물을 배경으로 20여 분간 진행되는데, 한 해의 복이 들어오는 한자를 형상화한 불꽃을 쏘아 올려 장관을 이룬다. 아름다운 영상과 레이저로 그려낸 화려한 그림은 새해를 맞이하는 설렘과 감동을 느끼게 한다. 새해맞이 행사는 이후에도 일주일 정도 계속된다.

중국 사람들은 춘절을 가장 중요한 명절로 여기기 때문에 이 기간 홍콩의 건물과 거리 곳곳은 빨간색과 황금색으로 장식된다. 상점들은 일루미네이션으로 반짝이고 수많은 현지인과 관광객이 어우러져 평소보다 들뜬 분위기가 조성된다. 또 20년 넘게 진행해온 '나이트 퍼레이드'에서는 화려한 장식의 수레와 다양한 퍼포먼스, 경품 행사가 열려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홍콩 사람들은 설날 당일 새해 첫 참배를 하기 때문에 '윙타이신 사원(Wong Tai Sin Temple)'이나 '차공묘(車公廟)'는 번잡할 수 있으니 관광객들은 다른 날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핫 스팟으로 떠오른 센트럴

몇 시간이면 돌아볼 수 있는 '센트럴(Central)'은 작은 지역이지만, 홍콩의 과거와 현재를 엿볼 수 있는 곳이다. 영국이 점령할 당시 처음 정착한 지역으로 정치, 행정, 교육, 문화 등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의미 깊은 장소이며, 화려한 홍콩의 모습 너머에 옛 정취를 간직하고 있다. 곳곳에 영국 식민지 시절의 관공서와 건축물이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으며, 동시에 세계의 금융, 패션, 현대적 건축물 그리고 모던 아트가 밀집해 있다. 그래서인지 다양한 국적과 인종, 광범위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늘 북적거린다. '할리우드 로드(Hollywood Road)'의 '만모 사원(Manmo Temple)' 옆에는 촘촘하게 연결되어 사다리처럼 보이는 '래더 스트리트(Ladder Street)'의 돌계단이 있다. 1841년에서 1850년 사이에 만든 오래된 유산인 이 계단을 오르면 양옆으로 주택가와 요즘 핫 플레이스로 떠오른 포호(Poho) 거리를 만날 수

있다. 최근 핫한 홍콩에서 젊은이들이 모이는 포호는 할리우드 로드를 기준으로 남쪽을 소호(Soho), 북쪽을 노호(Noho)라고 한다. 세련된 분위기의 소호나 예스러운 노호와 달리 포호는 자유분방한 것이 특징. 거리의 그래피티도 멋스럽고 앤티크 가구점과 갤러리, 디자이너 소품 숍이 하나둘 들어서고 있다. 이처럼 센트럴은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소호를 가득 메운 다양한 국적의 레스토랑만 봐도 동서양을 넘나드는 홍콩을 짐작할 수 있다. 아트의 거리 할리우드 로드의 많은 갤러리에서도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한껏 즐길 수 있다.

드라이브하며 누리는 휴식

빨간 머스탱이 잘 어울리는 홍콩에서의 드라이브 코스를 꼽으라면 단연 '스탠리(Stanley)'다. 홍콩섬 남동부에 있는 작고 평온한 바닷가 마을로 굽이굽이 돌아가는 좁은 산골 도로를 지나며 창밖의 이국적인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가파른 절벽과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탁 트인 바다 위 요트와 멋진 외관의 고급 빌라들이 로맨틱한 드라이브 코스를 완성한다. 유럽의 어느 작은 도시를 연상시키는 이곳은 해변을 따라 늘어선 카페에 앉아 바닷바람을 맞으며 여유를 만끽하기에 그만이다. 원래는 작은 어촌이던 '스탠리'는 군사시설이 이전하면서 영국군의 임시 수도 역할을 하기도 했다. 당시 많은 외국인이 이곳에 자리를 잡은 뒤 독특한 외관의 건물을 짓고 살았는데 그들을 상대로 실크와 신발, 가방 등을 판매하는 상점이 생기면서 명소로 거듭났다. 이후 공공기관은 홍콩섬으로 옮겨갔지만 여전히 그 흔적이 남아 있다. 복잡한 홍콩섬을 벗어나 바다를 보며 휴식과 여유를 누리고 해안선에 자리한 스탠리 마켓에서 쇼핑하는 홍콩의 젊은이들처럼 '스탠리'를 맘껏 즐겨보자.

1 '스타의 거리'에서 만날 수 있는 실물 크기의 이소룡 동상 2 '빅토리아 하버'에서는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떠다니는 페리와 함께 '심포니 오브 라이트'가 진행되면 로맨틱한 분위기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다. 3 가파른 절벽과 탁 트인 바다 위 요트와 고급 빌라들이 장관을 이루는 '스탠리'를 홍콩의 드라이브 코스로 추천한다. 4 세계의 금융, 패션, 현대적 건축물, 모던 아트가 밀집되어 있는 '센트럴'은 요즘 각광받은 핫 스팟이다.



따스한 햇살이 가득한 배우 정원영

천생 배우라는 말이 있다. 배우 정원영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무대 위에서 더 빛나는, 무대를 즐기는 듯한 배우. 힘 없이 다양한 작품을 무대에 올리며 관객을 만나고 있는 그는 식을 줄 모르는 햇살 같은 배우다.

Editor 정예진 Photographer 심주호 Hair & Makeup 주민국
Cooperation ECCO(031-628-4800),
KAI-AAKMANN-THEORY(02-6911-0814)

브라운 니트는 피어리 맨

햇살이라는 별명으로 통하는 뮤지컬 배우 정원영을 만났다. 그는 뮤지컬 〈인 더 하이츠〉의 우스나비 역으로 관객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글서글한 인상이 매력적인 배우 정원영, 그는 왜 햇살로 불릴까?

“아마도 뮤지컬 〈완득이〉 공연을 하면서 한지상 배우와 인터뷰를 한 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서로를 소개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한지상 배우가 저를 태양 같은 배우라고 말했거든요. 덧붙이기를, 태양은 너무 뜨겁고 햇살이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그 후 팬들 사이에서 항상 웃는 얼굴이라며 햇살로 불리고 있어요.”

정원영은 한지상과 함께 뮤지컬 〈완득이〉에서 주인공 완득이 역을 맡았다. 그는 자신의 별명을 좋아했다. 실제로 그는 여러 인터뷰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는 이야기를 할 만큼 밝은, 딱 햇살 같은 사람이다. 배우가 한 이미지에만 매몰되면 어쩌냐고? 그건 이미 그가 해온 작품을 통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어떤 무대든 관객을 사로잡을 수 있는 스펙트럼 넓은 배우라는 것을 말이다.

2007년에 데뷔한 그는 혜성처럼 나타난 배우는 아니다. 〈사랑은 비를 타고〉, 〈뷰티풀 게임〉, 〈내 마음의 풍금〉의 양상불을 거쳐 2009년에는 〈즐거운 인생〉의 세기 역을 맡았다. 그 후 〈이(爾)〉의 공길 역 등 스무 편이 넘는 작품을 통해 웃고 울리는 캐릭터를 소화했다. 어려 보이는 데다 부드러운 외모에 살짝 허스키한 보이스를 내는 것이 그의 매력이다. 스스로는 본인의 실제 모습과 가장 닮은 캐릭터로 〈라카지〉의 장 미셸 역을 꼽았다.



카키 컬러 맨투맨 티셔츠와 블랙 보머 재킷 카이마크만



피 후드가 달린 네이비 아우터 피어리 맨

“즐겁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철없는 면이 있으면서 동시에 남자답게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끌고 나가는 것, 그러면서 사랑에서는 물불 가리지 않는 면이 장 미셀과 비슷하죠”라며 〈리카지〉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형들과 정말 즐겁고 재미있게 공연한 작품이에요. 장 미셀은 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캐릭터지만 실제로 무대 위에서는 비중이 적죠. 〈리카지〉 걸들이 화려한 춤을 추거나 앨빈이 코믹하게 무대를 휘어잡는 것을 보면 순간순간 욕심이 나더라고요.” 그가 말하는 욕심은, 배우 정원영이 갖고 있는 넘치는 끼가 꿈틀대면서 느끼는 답답함이다. 그는 앙상블의 군무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어깨를 들썩였을 것이다. 정원영을 만나본 사람이라면, 그의 내면에서 찰랑거리는 배우로서의 끼를 느꼈을 것이다. 물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대 위의 정원영을 만나보는 것이겠지만. 그의 끼는 일부 유전적인 것이기도 하다. 그의 아버지는 배우 정승호다. “아버지가 직접 연기 지도를 해주는 건 아니지만 가끔 조언을 해주시는데, 그게 큰 힘이 돼요. 그중 ‘좋은 사회자는 1000명의 관객과 일일이 눈을 맞추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지 않는다. 대신 한 명의 이상적인 관객을 향해 이야기한다.

그러면 나머지 관객도 자연스럽게 너에게 집중할 것이다. 일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한 명의 관객을 위해 연기하는 모습을 보여라. 너만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은 잊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해요. 소극장이든 대극장이든 언제나 큰 길잡이가 되어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왜 가족들만 오면 실수를 하는 걸까요?” 하며 웃는 햇살 배우 정원영. 결혼 전 군 제대 후 부모님, 누나와 함께 땅끝마을 해남에서부터 서울까지 한 달간 자동차 여행을 한 즐거운 추억도 꺼내놓는다. 그는 이제 막 신흥여행을 다녀온 새 신랑이다. 그는 “포드 익스플로러 하면 캠핑이죠. 아직은 캠핑을 잘 모르지만 캠핑을 좋아하는 지인들 덕에 곧 떠나게 될 것 같아요. 캠핑하기에 딱 좋은 차, 여행이 생각나는 자동차예요”라며 포드 익스플로러와의 사진 촬영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요즘 차에서 즐겨 듣는 음악은 뮤지컬 〈킨키 부츠〉의 넘버들이다. “우리나라에서 초연하기 전 미국에 있는 사촌이 선물로 보내준 CD예요. 제게 잘 어울리는 넘버라며 추천해준 음악이죠. 듣고 나서는 후배 강홍석에게 추천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홍석이가 〈킨키 부츠〉의 롤라 역을 맡았어요. 요즘은 저도 꼭 한 번쯤은 해보고 싶은

작품이라 항상 운전하면서 듣고 있어요.” 이제 다시 〈인더하이츠〉로 돌아가보자. “〈인더하이츠〉는 손에 꼽는 어려운 작품이에요. 〈스트릿 라이프〉에서 DJ.DOC 노래를 하면서 랩을 하긴 했지만 귀에 익은 곡이라 조금 수월했죠. 하지만 〈인더하이츠〉는 가사도 새로 쓰고 뮤지컬에 맞는 랩을 해야 해서 초연 때는 랩을 소화하느라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어요. 그 후 일본에서 한 달간 〈인더하이츠〉를 하면서 좀 더 깊게 캐릭터에 스며들게 됐고요. 좀 더 깊은 우스나기, 연말에 관객과 한 판에 신나게 놀 준비가 되어 있는 우스나기를 선사해드릴 준비가 되었습니다”라며 그는 자신감을 보였다. 이미 뮤지컬 팬에게는 믿고 보는 배우가 된 정원영에게 다시 한 번 기대감이 생긴다. 〈인더하이츠〉가 끝날 무렵에는 전 세계 초연을 준비 중인 뮤지컬 〈미드나잇〉에서 새로운 정원영의 모습을 만날 수 있을 듯하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뜨고 어둠을 밝혀줄 거야 누가 뭐래도’ 배우 정원영이 꿈는 〈인더하이츠〉의 넘버다. 그의 햇살은 무대의 막이 오를 때마다 그렇게 무대를, 그리고 관객의 마음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다.

City Dream

포드 머스탱은 젊음과 열정의 아이콘이자 스포츠카 마니아들이 꿈꾸는 자동차다. 신기술과 새로운 디자인으로 중무장한 디지털 아이템과 함께 펼치는 머슬카, 머스탱의 매력.

Editor 김민정 Photographer 류창렬 Retoucher 김권석



- 1 레트로한 블랙 마이크 디자인이 눈길을 끄는 블루투스 스피커 'R50'. 하이파이 성향의 밀도감 있는 사운드 밸런스를 자랑한다. **지미스튜디오 디자인**
- 2 'EOS 5D Mark IV'는 약 3040만 화소의 35mm 새로운 풀 프레임 이미지 센서와 진화한 영상 처리 엔진 디지 6+(DIGIC 6+)를 탑재해 해상도와 고감도가 뛰어나다. **캐논**
- 3 게이밍 노트북 'ROG GL502'는 인텔의 최신 프로세서인 스카이레이크(인텔 코어 i7 프로세서)와 엔비디아(Nvidia)의 지포스(GeForce) GTX980M 그래픽 카드를 탑재해 최고 수준의 게이밍 경험을 제공한다. 15인치 스크린 노트북 중 23.5mm의 얇은 두께와 2.2kg의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을 높였다. **에이수스**
- 4 이전 세대보다 빠르고 강력하면서도 더욱 얇고 가벼워진 '맥북 프로(MacBook Pro)'는 터치 ID의 보안성과 편리함이 돋보인다. 키보드에 자주 쓰는 기능을 필요한 순간에 빨리 쓸 수 있게 하는 하드웨어 인터페이스인 터치 바(Touch Bar)를 새롭게 적용했다. **애플**
- 5 그린 컬러가 시선을 끄는 액션 카메라 'TG-트래커(TG-Tracker)'는 방수, 방한, 방진, 내충격성은 물론 초당 30프레임의 4K 동영상 촬영 기능과 아웃도어 활동 데이터 기록 기능을 갖추었다. **올림푸스**
- 6 브라운 가죽으로 디자인한 'PEN E-PL8'은 셀피 촬영 기능을 탑재한 프리미엄 미러리스 카메라다. 1605만 화소로 180도 펼쳐지는 고해상도 대형 터치 LCD 모니터를 탑재해 셀피 촬영을 손쉽게 할 수 있다.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원격 촬영도 가능하다. **올림푸스**



1 작고 가벼워 어디든 부담 없이 장착할 수 있는 액션캠 '히어로5 세션'은 4K 30 프레임의 영상 촬영과 1000만 화소 사진 촬영을 지원한다. 전자식 손 떨림 방지 기능과 음성 인식 기능, 방수 하우징 없이도 수중 10m까지 방수가 가능하다.

고프로

2 '사운드링크 미니 블루투스 스피커 II'는 10시간 사용 가능한 배터리 수명 향상과 마이크를 내장해 스피커폰으로 통화할 수 있다. 본체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다기능 버튼, 블루투스 기기의 다중 연결 등 편의성을 강화했다. **보스**

3 50m 방수 기능 및 듀얼 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해 동작 속도를 최고 50% 향상시킨 '애플 워치 시리즈 2' 블랙 케이스 미드나이트 블루 가죽 루프. 심박 센서와 GPS를 탑재해 수영 등 스포츠와 야외 활동 시 아이폰과 별도로 활용할 수 있다. **애플**

4 블루투스 헤드셋 '톤 플러스 HBS-1100'는 세계 최초로 '퀄컴 aptX™ HD' 오디오 코덱을 채택해 24비트 음원 무선으로 손실 없이 수신, 전송할 수 있다. 버튼 조작 없이 목소리로 전화를 수신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보이스 코맨드 기능을 갖춰 편의성을 높였다. **LG전자**

5 종이에 메모한 아이디어와 그림을 디지털 이미지 파일로 옮겨주는 스마트 패드 ' bambu 슬레이트(BAMBOO Slate)'는 아날로그 감성을 지녔다. 전용 볼펜으로 본체 위에 종이를 대고 스케치한 이미지를 파일로 저장해준다. 라이브 기능을 사용하면 대형 화면에 스케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와콤**

6 양측맞은 디자인의 무선 블루투스 마우스 '비틀 마우스'는 마우스 커버를 닫아 접을 수 있어 휴대가 간편하다. 그린, 핑크, 그레이, 블루, 블랙 5가지 컬러로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LG전자



1 액션캠 '히어로5 블랙'은 음성 제어 기능, 2인치 터치 디스플레이, 왜곡 없이 촬영이 가능한 리니어(Linear) 모드, GPS, 우수한 음성 녹음 기능 등을 탑재했다. 스마트폰과 연동 없이 후면 디스플레이를 통해 터치로 간단하게 촬영한 사진을 확인하고 편집까지 가능하며 각종 옵션을 조정할 수 있다. **고프로**

2 끈이 달려 있어 어깨에 멜 수 있는 가죽 파우치로 휴대성을 높인 포터블 스피커 '클래식 NP5558MC'는 15시간 연속 재생이 가능하다. 듀얼 플레이(Dual Play) 기능으로 스피커 두 대를 좌우 스피커로 활용해 입체적인 사운드를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다. **LG전자**

3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ATH-SR5BT' 무선 헤드폰은 크기가 작고 가볍지만 섬세하고 명료한 사운드를 그대로 즐길 수 있다. **오디오테크니카**

4 콤팩트한 '파워샷 G7 X Mark II'는 캐논 'G 시리즈'의 최신작으로 약 2010만 화소의 1인치 CMOS 센서를 탑재했다. 캐논 카메라 최초로 새로운 영상 처리 엔진인 '디지 7(DIGIC 7)'을 채택해 고해상도, 고감도, 저노이즈로 고품질 이미지를 표현한다. **캐논**

- 1 주변 소음을 차단하는 블루투스 헤드폰 'QC35 노이즈캔슬링 무선 헤드폰'은 내장된 센서와 마이크가 소음을 측정해 소음 제거 성능을 실현한다. 조용한 환경에서 균형 잡힌 사운드를 감상케 하는 EQ를 통해 장르에 상관없이 명료한 음악을 즐길 수 있다. **보스**
- 2 LP 재생은 물론 USB 케이블로 PC나 노트북에 직접 연결해 LP판의 사운드를 그대로 MP3 파일로 저장 가능한 턴테이블. **오디오테크니카**
- 3 동급 제품 중 가장 가벼운 노트북 PC '그램 15'는 15.6인치 대화면이지만 980g의 초경량을 구현했다. 웹캠을 통한 안면 인식 로그인인 가능한 페이스인 기능과 노트북 덮개를 열면 자동 부팅되는 오픈 부팅 시스템을 탑재해 편의성을 높였다. **LG전자**
- 4 고급스러운 우드 디자인 포터블 스피커 '클래식 NP5550NC'는 스마트폰에서 노래가 끝나면 다른 스마트폰에 있는 노래가 자동 재생된다. 즉, 두 대의 모바일 기기에 있는 노래를 연속으로 즐길 수 있다. **LG전자**

Cooperation

APPLE(02-6712-6700), ASUS(1566-6868), AUDIO-TECHNICA(02-3789-9801), BOSE(02-3446-3003)
CANON(1588-8133), GOPRO(070-8805-0859), JIMMY STUDIO DESIGN(02-790-7309), LG(1544-7777)
OLYMPUS(02-6002-3500), WACOM(02-557-3894)



Style in Scent

향기는 감정을 조절하고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향수 선택에 따라 그 사람의 매력이 달라질 수 있다. 자신만의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 뷰티의 마무리이자 패션의 시작인 향수로 스타일 지수를 높여보자.

Editor 김민정 Photographer 류창철 Retoucher 김권석

CLASSIC GENTLEMAN

(왼쪽부터) **1** 도회적인 남성을 표현한 프레시하고 센수얼한 무드의 오 드 투알렛 '맨 블랙 코롱 EDT'. 우디와 그린, 시트러스 노트가 어우러진, 뜨거움과 차가움이 대조를 이루며 우아하고 모던한 감각에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강렬함이 전해진다. **불가리** **2** 아몬드 향기를 레더와 바닐라 톱크 노트가 어우러진 매혹적인 향기로 완성한 '옴므 이데알 오 드 퍼퓸'. 우아한 불가리안 로즈에 이어 풍기는 인센스와 바닐라 톱크의 향기는 매혹적인 향취의 절정을 이루고 마지막에 레더와 톱카빈, 샌들우드 노트의 신비로운 향기가 더해져 진한 여운을 남긴다. **겔랑** **3** 여행에서 영감을 받아 도약, 이동, 일탈, 자유 등을 표현한 '보아쥬 데르메스 퓨어 퍼퓸'. 프레시한 우드 향과 부드럽고 편안한 앰버 향, 산뜻한 안젤리카의 향이 신선하면서 포근한 느낌을 준다. **에르메스**

MODERN DANDY

(왼쪽부터) **1** 동물과 식물, 남성과 여성처럼 상반된 두 요소가 조화를 이뤘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감을 받아 완성한 '갈로 데르메스'는 은은한 사프란과 도블리스, 장미의 향기가 오묘한 조화를 이룬다. 승미와 브랜드 역사를 상징하는 감각적인 보틀 디자인에서 말이 들판을 달리는 듯한 상쾌함이 전해진다. **에르메스** **2** 톱 노트에서 섬세한 앰버와 바닐라, 인센트를 베이스로 한 패츨리 향이 돋보이는 '패츨리 인텐스'는 젊고 고급스러운 감성을 자아낸다. **니콜라이** **3** 남성의 숨은 본능을 일깨우는 아찔한 향기를 담은 '퍼스트 인스팅트'. 관능적 향이 매력적인 후제아 아로마틱 계열의 향수로 남녀가 만났을 때 폭발하듯 터지는 감정을 보틀 라인으로 표현했다. **아베크롬비 앤 피치**



URBAN CHIC

(왼쪽부터) **1** 탐험을 좋아하며 대담한 레이싱을 즐기는 바이커의 모습을 표현한 '다크레블 라이더'. 톱 노트는 상큼한 비터 오렌지 향으로 시작해 섹시한 레더 향과 깊고 부드러운 앰버 향이 조화를 이룬 가볍고 섬세한 우디 향으로 마무리된다. **존 바바토스**
2 상쾌한 향으로 시작해 풍부하고 남성적인 우디 향으로 마무리되는 '소바쥬'는 자신감 넘치는 남성을 형상화했다. 블랙 잉크를 연상시키는 보틀은 그라데이션되어 신비롭고 새로운, 혁신적인 감성을 전한다. **디올 옴므**
3 네뮐리, 제라늄, 패츨리 등이 조화를 이룬 '르옴므 프라다'의 관능적이고 시원한 향기에 매력적인 도시 남성의 멋이 담겨 있다. 로고를 새긴 사피아노 가죽으로 디자인한 보틀이 인상적이다. **프라다**



SPORTY CASUAL

(왼쪽부터) **1** 베네치아를 상징하는 사이프러스 나무의 활력을 담은 '파르코 팔라디아노 II'. 여유로운 이탈리아의 감성이 느껴진다. 사이프러스 나뭇잎 향의 싱그러운 톱 노트에 핑크 페퍼의 스파이시한 향이 이어지면서 세련되고 도전적인 향수로 탄생했다. **보테가 베네타**
2 투스카니 아이리스의 프레시하고 에너지 넘치는 향취가 더해진 '디올 옴므 스포츠'. 열정적인 남성의 강렬함을 전하고자 깔끔한 사각 보틀에 블랙 튜브를 강조하는 디자인을 완성했다. **디올 옴므**
3 톰 포드의 시그너처 향수인 '블랙 오키드'를 좀 더 가볍게 완성한 '블랙 오키드 EDT'. 전 세계에서 보기 어려운 귀한 블랙 오키드의 관능적인 향과 스파이스, 리치 다크 어코드의 럭셔리하고 감각적인 향의 조화가 이치적이면서도 야성적이다. **톰 포드 뷰티**



Cooperation
JOHN VARVATOS · PRADA(080-363-5454)
BOTTEGA VENETA(02-515-2717)
BVLGARI · NICOLAI(080-990-8989)
DIOR HOMME(080-342-5900)
GUERLAIN(080-343-9500)
HERMÈS(02-310-5174)
TOM FORD BEAUTY(02-3479-1436)

Party all the Time



파티나 모임이 잦은 연초. 잘 고른 앨범 한 장이 분위기를 달아오르게 해줄 것이다. 때로는 신나게, 때로는 로맨틱하게 파티의 분위기 메이커가 되어줄 네 장의 신보를 소개한다.

Editor 정예진 Photographer 류창렬
Cooperation SONY MUSIC(02-530-0900), WARNER MUSIC(02-560-7900)

1 24K Magic

파티 음악에 브루노 마스를 빼놓을 수 없다. 미국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서 관객을 열광시킨 최연소 퍼포머이자 데뷔 1년 만에 〈타임〉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 안에 들어간 브루노 마스. 제목부터 불링블랑한 그의 세 번째 정규 앨범은 30, 40대가 흠뻑 취할 만한 1990년대 올드 스큐 감성으로 가득하다. 1번 트랙부터 9번 트랙까지 순서대로 작업하며 펑크부터 뉴 잭 스윙 등 여러 장르를 이용해 또 하나의 신나는 앨범을 완성했다.

Bruno Mars, 1CD 9곡, Warner Music

2 The Real Royal Albert Hall 1966 Concert

얼마 전 포크 애호가들에게 축제 같은 일이 일어났다. 밥 딜런이 2016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그의 공연 역사상 중요한 공연 실황 앨범이 발매되어 팬들이 환호하고 있다. 1966년 5월 26일 로열 앨버트 홀의 공연으로 최신 기술력을 통해 기존 녹음 소스의 왜곡된 부분을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복원했다. ‘Like a Rolling Stone’, ‘It’s All Over Now, Baby Blue’ 등이 수록된 이 앨범은 1966년의 파티 현장으로 데려가줄 것이다.

Bob Dylan, 2CD 15곡, Sony Music

3 Tony Bennett Celebrates 90

음악을 통해 시간 여행을 떠나보자. 프랭크 시나트라, 냇 킹 콜과 함께 시대를 주름잡은 토니 베넷의 90세 생일을 기념해 2016년 9월, 뉴욕 라디오 시티 뮤직홀에서 특별 공연이 열렸다. 이 앨범은 그날의 공연 실황을 담은 것으로 빌리 조엘, 안드레아 보첼리 등 동료 가수들은 물론 레이디 가가와 스티비 원더의 목소리도 들어 있다. 1995년 그래미 시상식에서 ‘올해의 앨범상’을 받으며 제2의 전성기를 누린 토니 베넷은 이번 앨범을 통해 음악은 영원하다는 명제를 다시 한 번 입증해 보였다.

Tony Bennett, 1CD 18곡, Sony Music

4 Darkness and Light(Deluxe Edition)

지난해 4월, 존 레전드에게 딸 루나(Luna)가 태어났다. 달이라는 뜻의 루나는 어둠 속의 빛을 의미한다. 그가 딸에게서 받은 긍정적 영향이 고스란히 앨범에 반영되었다. 존 레전드 특유의 부드러움과 소울, 품위는 이전 앨범만큼이나 여전하다. 그는 SNS를 통해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한 시기이며 가족과 음악을 통해 빛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겨울 따뜻함에 흠뻑 빠지고 싶다면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그의 음악을 들으며 뜻깊은 시간을 가져보자.

John Legend, 1CD 15곡, Sony Music

Season Greeting Gifts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동안 표현하지 못한 마음을 담아 전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별했다.

Editor 김민정 Cooperation <http://merchandise.ford.com>

 1	 2
 3	 4
 5	 6
 7	 8

* 위 제품은 국내 판매용이 아니며, 인터넷 해외 배송으로만 구입 가능합니다.

1 2017 Ford GT Special Edition 1:18 Diecast

오픈형 도어, 후드, 트럭, 작동 가능한 스티어링, 사륜 서스펜션 등이 포함된 메탈 보디가 특징인 블루 컬러 2017 포드 GT 스페셜 에디션. 29.95달러

2 Alpaca Blanket

한 면은 부드러운 마이크로 모피로, 반대쪽은 인조 알파카로 만들어 따뜻한 담요. 76.95달러.

3 Blanket Scarf

블루 체크 디자인이 감각적인 스카프는 따뜻함과 스타일리시함을 겸비한 겨울철 포인트 패션 소품으로 손색없다. 24.95달러

4 Brandon Moose with T-shirt and Scarf

빨간 티셔츠와 컬러풀한 머플러를 두른 사슴 인형은 앙증맞은 귀여운 사이즈로 아이들 선물로 안성맞춤이다. 18.95달러.

5 Dashboard-Style Weather Station/Clock

온도계와 습도계가 함께 있어 유용한 탁상시계. 포드 대시보드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으로 알루미늄과 우드 소재가 믹스 매치되어 세련된 감성을 자아낸다. 47.95달러.

6 Mustang 4-in-1 LP Record Player

레트로 감성을 품은 머스탱 LP 레코드 플레이어는 레트로 뮤직 센터 턴테이블과 라디오, USB(녹음과 재생 가능), MP3 기능을 겸비한 4-in-1아이템이다. 149.95달러.

7 Mustang Transit Tumbler

역동적 디자인이 돋보이는 머스탱 텀블러는 이중 스테인리스스틸의 푸시-버튼 잠금장치로 편리함을 높였다. 18.95달러.

8 Shadow Snowboard

블랙에 포드 로고가 돋보이는 스노보드 텍은 설원에서 멋스러움을 뽐내며 라이딩을 즐길 수 있다. 스테인리스스틸이 내장된 우드 및 강화 유리 소재로 길이는 157cm, 무게는 3kg. 539.95달러.

Wonderful Dining

좋은 사람들과 함께 멋진 새해를 보낼 수 있는 레스토랑이 절실한 요즘, 송훈 셰프가 지휘하는 레스토랑 에스테번을 리스트에 올려두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이다. 청담동 도산공원 앞에 자리 잡은 에스테번은 자연광을 만끽하며 셰프의 자신감을 한껏 ‘맛볼’ 수 있는 멋진 레스토랑이다.

Editor 정예진 Photographer 류창렬 Cooperation 에스테번(02-518-5505)

JAMBALAYA

잠발라야

미국 뉴올리언스의 술 푸드에 사용하는 크리올 시즈닝을 사용해 만든 쌀 요리. 소시지, 닭다리 살, 채소, 새우와 함께 고슬고슬하게 씹히는 쌀의 식감이 일품이다. 뜨겁게 달군 무쇠 팬에 서브되어 풍미가 더욱 좋다.

SEAFOOD SALAD

해산물 샐러드

새우와 주꾸미를 간장 베이스로 매리네이트하고 중식 스타일의 워에서 불 맛을 입혀 동양적인 맛이 특징이다. 짭조름한 맛에 신선한 채소와 자몽, 오렌지를 곁들여 상큼하다.

CARTOCCIO

카르토초

전복, 바지락, 홍합, 새우를 중식 스타일의 웍에서 파 기름으로 조리해 불 맛과 해산물의 진한 향을 느낄 수 있다. 이 재료를 제철 생선과 함께 종이에 싸서 찌듯이 익히면 그 맛이 부드러워 소스 없이도 훌륭한 요리가 된다.

송훈 셰프

도산공원을 마주 보고 있는 에스테번은 남부식 그릴 요리를 중심으로 한 레스토랑이다. 송훈 셰프는 테번(Tavern)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을 만들고자 했다. 그는 미국에서 요리를 공부하고 현지 레스토랑에서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 미슐랭 1스타 레스토랑, 뉴욕 그래머시 테번에서 수석 셰프를 지냈다. 귀국한 후에는 굴지의 외식 사업부에서 메뉴를 책임지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방송을 통해 아메리칸 스타일의 요리와 함께 매력적인 보이스와 젠틀한 매너로 눈길을 끌고 있다.

Q. 에스테번의 콘셉트와 주메뉴는?

A.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음식과 환경을 만들고자 했다. 큰 창과 2층의 오픈 테라스 등을 통해 도산공원과 연결된 듯한 느낌을 주고 도심에서 자연을 만끽하며 맛있는 식사를 즐기는 콘셉트가 특징이다. 메뉴 구성도 한 접시 안에서 동서양의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홀덤펍과 프렌타이 랍스타, 로티세리 치킨이 주메뉴지만 손님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맛을 찾기를 원한다.

Q. 겨울에 즐기기에 좋은 메뉴를 추천한다면?

A. 겨울에 추천하는 메뉴는 카르토초라는 생선 요리다. 카르토초는 얇은 종이를 의미한다. 웍에서 불 맛을 입히고 국물이 자작하게 밴 요리들이 생선과 함께 종이 안에 제공된다. 추운 겨울날 먹기 좋은 음식이다.

Q. 유리도 없는 오픈 키친 바로 앞에 있는 긴 바(Bar) 형태의 테이블이 독특하다. 이와 더불어 인테리어에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A. 음식과 굳이 균형을 맞추지 않은 인테리어, 해가 잘 들어오는 밝고 화사한 실내, 오픈 키친 형태를 선호한다. 편안하지만 촌스럽지 않은, 고급스러운 스타일이다. 키친 앞 바 테이블에서는 손님들이 요리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다. 참나무가 타는 소리와 향, 셰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달그락거리는 소리, 식자재의 향이 마치 한 편의 뮤지컬을 보는 듯 요리의 전 과정을 즐길 수 있다.

Q. 에스테번에서 와인 선택에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A. 미국 남부 스타일의 그릴 요리이므로 그릴 향과

어울리는 와인이 좋다. 화이트 와인을 고르다면 샤도네이 계열을, 레드 와인을 고르다면 숙성 기간이 긴 스페인 레드 와인이 어울린다. 또 미국 스타일의 음식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미국 와인과 맥주를 즐겨도 좋을 것 같다.

Q. 포드 오퍼들에게 집에서 스테이크 굽는 팁을 알려준다면?

A. 집에 오븐이 없다면 3cm 이상의 두꺼운 고기는 피하는 것이 좋고, 2cm 정도가 적당하다. 가정에서 쓰고 있는 가스레인지가 레스토랑 키친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처음에 고기를 구울 때는 충분히 팬을 가열한 뒤 고기를 시어링하는 것이 관건이다.

Q. 미국에서 요리할 때와 달리 우리나라만의 매력적인 식자재가 있다면?

A. 미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산나물이 많아서 좋다. 명이나물, 참나물, 냉이, 방풍잎 등 고유의 향과 맛이 살아 있는 재료들이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산나물은 제대로 활용하면 어떤 재료와도 잘 어우러지는 식자재다.

Q. 에스테번 밖에서 송훈 셰프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A. 기회가 되면 예능이 아닌 요리를 보여줄 수 있는 TV 쇼를 통해 활동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본업이 셰프인 만큼 에스테번의 키친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레시피를 담은 책 출판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교과서처럼 오래도록 두고 볼 수 있는 책이면 좋을 것 같아 공부 중이다. 당장은 새해를 에스테번에서 보낼 고객들을 위해 철저히 준비할 생각이다.



하늘을 날고 싶은 끝없는 욕망 패러글라이딩

언덕 끝까지 힘차게 달리다 몸을 던지면 몸이 붕 뜨는 느낌을 받는다. 머리 위로는 구름이, 발아래로는 온통 흰 눈으로 뒤덮인 설원이 펼쳐진다. 옮겨올에는 한 마리 새가 된 듯 창공을 가르는 패러글라이딩의 매력에 빠져보자.

Editor 박성미



낙하산으로 만든 날개로 날다

패러글라이딩은 1984년 프랑스의 등반가 장 마르크 쿠오뱅(Jean Mark Cuovins)이 스카이다이빙용 패러 슈트를 이용해 등반 후 쉽게 하강하기 위해 사용하며 시작됐다. 장 마르크 쿠오뱅은 당시 낙하산을 개조해 처음으로 패러글라이더를 만들어 비행에 성공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패러글라이딩의 시작이다. 패러글라이딩(Paragliding)은 낙하산(Parachute)과 행글라이딩(Hanggliding)의 합성어로, 분해와 조립, 운반이 쉬운 낙하산의 특징에 행글라이더의 활공성과 속도를 더해 이상적인 형태로 만들어졌다. 별도의 동력 장치 없이 사람이 달려가면서 이륙을 하거나 또는 제자리에서 이륙해 비행을 한 후 두 발로 착륙하면 끝이다. 쉽고 간단하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면서 국제 항공 연맹 산하 국제 행글라이딩위원회 조직 내에 패러글라이딩 분과를 구성해 새로운 항공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

패러글라이딩과 행글라이딩의 차이

패러글라이딩과 행글라이딩의 비행 장비는 모양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낙하산 모양의 글라이더로 비행하는 것이 패러글라이딩이고, 삼각형 모양의 날개를 가진 글라이더로 비행하는 것이 행글라이딩이다. 비행기 모양에 가까운 행글라이딩이 비행 속도가 더 빠르다. 패러글라이딩은 초보자들도 비교적 쉽게 배울 수 있지만, 행글라이딩은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 패러글라이딩은 자동차를 타듯 앉은 자세로 비행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당겨 회전 방향을 조정하고, 행글라이딩은 새가 나는 것처럼 엷드린 자세로 컨트롤 바를 잡고 무게중심을 바꾸며 비행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패러글라이딩은

3~4시간의 강습만으로도 50m의 완만한 경사에서 비행이 가능한 데 비해, 행글라이딩은 장기간에 걸쳐 꾸준한 연습과 강습을 받아야 혼자 비행할 수 있다. 국내에서 패러글라이딩을 교육받을 수 있는 곳은 여러 군데 있지만, 행글라이딩을 교육받을 수 있는 곳은 경남 하동 평사리 공원 외에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패러글라이딩을 위한 필수 코스

“패러글라이딩이 위험하다는 인식도 있는데, 자만하지 않고 전문 강사의 지시에 따라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 위험하지 않다. 한국패러글라이딩학교는 1년에 5000회 이상 비행을 하는데 한 번 정도 골절 사고가 나기도 한다. 오히려 초급보다 혼자 300회 이상 비행한 중수들이 이따금 사고를 낸다.” 한국패러글라이딩학교(www.korea-para.co.kr) 원용목 대표의 말이다. 초등학교생부터 70대까지 연령에 제한 없이 도전할 수 있는 패러글라이딩 교육과정은 대체로 총 5단계로 나뉜다.

1단계: 입문 과정. 패러글라이딩이 자신에게 맞는지 가능하는 단계로, 이 단계에서 재미를 느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2단계: 30회 내외의 단독 비행을 하게 된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셈이므로 스스로에게 맞는 장비를 사서 착용하는 것이 좋다. 주로 이착륙 과정을 연습한다.
3단계: ‘오랫동안 떠 있기’를 연습하는 단계.
4단계: ‘높이 올라가기’와 ‘멀리 가기’를 연습한다. 이때는 구름 위로도 올라가고, 장거리 비행을 하면서 다른 행정구역으로 넘어가기도 한다.
5단계: ‘높이, 멀리, 빨리’를 연습하는 단계로, 여기까지 마치면 선수 자격증이 부여된다. 부지런히 교육을 받으면 2년 안에 자격증도 딸 수 있다.

tip

기본 장비

1 하네스 가장 중요한 장비인 하네스는 허리와 다리에 착용하는 안전 벨트다. 패러글라이더와 비행사를 연결해주며 비행사가 조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종석 역할도 한다. 측면에는 보조 낙하산이 들어 있어 위급한 상황에 쓸 수 있다.
2 캐노피 패러글라이더는 주머니형에 가까운 낙하산 형태 캐노피와 캐노피에 연결되어 글라이더의 조정을 유지하는 산줄들, 또한 이를 연결한 라이저로 구성된다.
3 헬멧 이착륙 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도구로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특히 지상 착륙 시 또는 연습 시 무게중심을 잃어 머리 부분이 땅이나 돌과 충돌해 다치는 경우도 있으므로 헬멧은 항상 바르게 착용해야 한다.
4 GPS 뎡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준다. 뎡에 물과 간식을 넣어 비상식량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패러글라이더를 타는 데 적절한 무게를 맞추기 위해 물병을 더 넣기도 한다.
5 기타 이 밖에 위급 상황을 알리고 동료들과 수신하는 무전기, 고도계, 비행화, 비행복, 선글라스, 장갑 등이 필요하다.

패러글라이딩 포인트

패러글라이딩은 20~30도의 경사와 충분히 뿔 수 있는 평탄한 언덕, 맞바람이 부는 곳으로 이륙 장소에 갈대나 나무, 바위 등의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패러글라이딩을 즐기기에 최적인 베스트 스팟이다.
1 충북 단양 양방산 남한강의 비경과 단양 시내가 그림처럼 펼쳐져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다. 지형과 기후가 적합해 양방향 비행도 가능하다. 정상에는 다섯 개의 활공장과 활공 연습장, 초경량 항공기, 활주로가 갖춰져 있고 패러글라이딩뿐 아니라 행글라이딩도 가능하다.
2 전남 여수 미래산 여수 팔경 중 하나로 패러글라이딩이 아니더라도 가을 만한 가치가 있는 곳. 오동도, 한산사, 경호도, 검은 모래로 유명한 만성리해수욕장 등 발아래로 펼쳐진 근사한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
3 강원도 영월 봉래산 국내 최대 높이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할 수 있는 곳. 해발 800m로 고도가 높아 더 오랫동안 하늘과 바람을 만끽할 수 있다. 영월 시내와 동강의 비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4 경기도 양평 유명한 각종 패러글라이딩 대회가 개최되는 패러글라이딩의 성지. 활공장의 고도가 높아 비행시간이 꽤 긴 편이라 탁 트인 풍경을 만끽하며 힐링하기 좋다.
5 제주 금오름과 서우봉 맑은 공기와 파란 하늘, 어디서든 보이는 한라산과 제주 바다 등 천혜의 자연을 날것 그대로 마주할 수 있다.



21세기의 가장 강력한 스펙, 자존감

2017년의 트렌드를 분석한 책들이 가장 주목하는 키워드는 바로 ‘나 자신’이다. 믿을 건 나밖에 없는 세상, 국가도 사회도 가족도 나를 보호해줄 수 없고, 어떻게든 혼자 살아남아야 하는 지금, 당신의 자존감은 안녕하신가?

Editor 박성미 참고 서적 《자존감 수업》 윤홍균 저, 심플라이프

자존감이 왜 중요한가?

“내 인생에서 가장 불행했을 때는 자존감이 가장 저하되어 있을 때였다”고 고백한 《자존심 수업》의 저자인 정신과 전문의 윤홍균은 이렇게 말한다. “자존감 문제는 내게만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 불행하다며 나를 찾아오는 대다수는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들이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사람, 사랑하는 연인과 이별한 사람, 우울증 환자, 중독자, 죽고 싶은 사람과 그 가족… 이들은 하나같이 자존감 문제를 안고 있었고 나는 그들을 도왔다. 그러니까 나는 의사이자 자존감 트레이너인 셈이었다.” 그는 정보가 폭발하는 요즘은 고유의 정체성조차 비교당하는 시대라고 말한다. 내가 하는 생각, 살아가는 과정, 판단, 결과도 비교 대상이 되었다. 그럭저럭 잘살고 있는 사람들조차 마음 한구석에 ‘내가 정말 잘살고 있는 걸까’라는 의문을 갖는다. 끊임없이 비교하며 열등감을 조장하고, 내 환경을 원망하는 사이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진다. 행복해지기 위한 온갖 방법과 글귀가 난무하지만 진짜 행복은 튼튼한 자존감에서 나온다. 건강한 자존감이야말로 요즘처럼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다.

자존감이 인간관계를 좌우한다

우리는 여러 사회에 속해 있다. 직장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것에 집착하다 보면 가정엔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배우자에게 인정받으려다 부모님과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우리가 가진 에너지에는 한계가 있기에 애당초 모든 면에서 가치를 인정받기란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답은 과정에 있다. 과정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의 나’에게 집중할 수 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기에 결과가 나쁘더라도 상처가 적다. 자존감은 ‘내가 내 마음에 얼마나 드느냐’에 대한 답이다. 그러기 위해선 타인의 평가가 아닌 ‘자신의 평가’에 집중해야 한다. 인간관계가 힘든 사람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거리감이다.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려 하거나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는 빨리 포기하는 것이 낫다. 나랑 맞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고, 안 맞는 사람에게는 집중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존감 회복을 위해 버려야 할 마음 습관

무너진 자존감을 되찾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지만, 다음 다섯 가지 마음 습관만 버려도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첫째, 미리 좌절하는 마음이다. 절망하는 습관은 스트레스에 대한 면역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실패할 거라는 확신으로 이어진다. 둘째, 무기력이다. 게으름, 의욕 저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음, 의지박약, 끈기 부족 등으로 표현되는 무기력감에서 빠져나오려면 일단 움직여야 한다. 밖에 나가 조금이라도 걸어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몸부림이라도 쳐야 한다. 셋째는 열등감이다. 열등감을 버리려면 세상을 우월함과 열등함, 좋고 나쁨으로 구분 짓는 습관에서 먼저 벗어나야 한다. 넷째, 미루기와 회피하기다. 이는 남들은 어떤지 먼저 살피고, 해결책보다는 원인만 파악하려 애쓰고, 불평과 비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의 특징이기도 하다. 변화를 피하고 미루는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목표를 잡아야 한다. 다섯째, 예민함이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많은 걸 자신과 연결하려는 습성이 있다. 자신과 별로 상관없는 일을 자기 문제로 연결 지어 예민하게 구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tip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다섯 가지 실천

자존감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고 만족하느냐’에 대한 스스로의 대답이자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 1 자신을 맹목적으로 사랑하기로 결심하기** 성격이 소심하거나 자존감이 낮다는 이유로 자신을 미워해선 안 된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할 것
- 2 자신을 사랑하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을 미워하거나 다그치는 데 익숙하다. 어깨를 두드리며 “괜찮아, 잘하고 있어!”라고 말할 것
- 3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기** 완벽한 선택이란 없다. 중요한 건 결정을 미룰 때마다 자신의 존재감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 4 지금, 여기에 집중하기** 모든 해결책은 현재에 있다. 지금,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귀 기울이기
- 5 패배주의를 뚫고 전진하기** 나는 잘 안 될 거라는 마음이 들 때 다음 세 가지를 연습할 것. 첫째,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처럼 걸어라. 둘째, 나를 사랑하는 듯한 표정을 지어라. 셋째, 자존심이 아주 강한 사람처럼 혼잣말을 해라. “괜찮아, 누구나 이런 일을 겪기 마련이야!”

Ford News

Editor 김민정



포드 몬데오 ‘2016 자동차 안전도 평가’에서 안전도 종합 최고 등급 획득

포드의 대표적인 디젤 세단 몬데오가 지난 2016년 12월 6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16 자동차 안전도 평가’(이하 2016 KNCAP)에서 총점 91.5점(100점 만점)을 받아 안전도 종합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몬데오는 2016 KNCAP의 충돌 안전성, 보행자 안전성, 주행 안전성 등 총 3개 부문에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보행자 안전성 부문에서는 평가 차종 중 최고점인 19.9점을 받아, 2016 KNCAP 평가 대상 모델 14개 차종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또 전복 안전성 및 제동 안전성 등 주행 안전성 측면에서 별 5개를 받아 실제 운전 상황에서의 사고 발생률을 낮추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이 입증되었다. 유럽형 패밀리 세단으로 각광받는 몬데오는 다양한 안전 기술이 집약되어 있다. 동급 모델에서는 유일하게 탑재된 뒷좌석 ‘팽창형 안전벨트’는 사고 발생 시 안전벨트가 부풀어 오르며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로,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의 안전을 강화했다. 야간 운전 시 운전자들의 시야를 더 밝고 넓게 확보해 안전 운전을 도와주는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었으며, 초고강성 스틸을 차체 구조에 적용해 차체 강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포드코리아 정재희 대표이사는 “포드 몬데오는 100여 년 전부터 유럽에 터전을 두고 기술을 개발해온 포드 유럽의 기술력과 미국 특유의 안전성 및 실용성이 더해진 합작품”이라며 “2016 KNCAP 테스트를 통해 다시 한 번 몬데오의 안전 기술이 입증되어 디자인, 성능, 편의 사양은 물론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고려해 개발한 포드 몬데오가 고객들에게 폭넓은 선택이 되었으면 한다”고 몬데오에 대한 자부심과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2016 KNCAP 평가 결과에 따른 ‘2016 올해의 안전한 차’ 시상식에서는 포드 몬데오의 안전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 포드 제품 개발부 엔지니어 수딕 상카 바타사르지(Sudip Sankar Bhattacharjee) 매니저에 대한 우수 연구인 상상이 이루어졌다. 그는 특히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 시각에서 다양한 안전 실험 및 연구를 진행해 보행자 안전성을 향상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2016 포드 미래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최

포드코리아는 지난 2016년 6월 28일 국내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활약할 미래 인재 발굴과 육성을 위해 ‘2016 포드 미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자동차 관련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연계를 통한 현장 실습 등의 교육을 제공하고, 자동차 분야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포드코리아와 공식 딜러사들이 함께 진행하는 산학 협력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미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한 자동차 관련 대학 기관은 한국 폴리텍 1대학 정수캠퍼스, 두원 공과 대학교 안성·파주 캠퍼스, 여주대학교 등 총 3개의 대학이다. 각 대학에서 선발한 2017년 졸업 예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참여 학생들은 약 일주일 동안 평택에 있는 포드 트레이닝센터에서 포드자동차에 대한 소개 및 자동차 기본에 대한 트레이닝을 받았다. 트레이닝 이후에는 포드코리아의 공식 딜러사인 선인모터스와 더파크모터스의 포드 서비스센터에서 3주간 현장 실습을 통해 포드 전문 기술자로서 필요한 주요 기술 교육을 진행했다. 정재희 대표이사는 “포드코리아는 1999년부터 대학 및 관련 교육기관에 연구용 차량을 기증해왔고, 2013년부터는 포드 미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꾸준히 산학연계 활동을 진행해왔다”면서, “앞으로도 한국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 인재를 발굴하고, 이들이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는 기업이 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포드 미래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선인자동차, 포드 전시장 확장 이전 및 서비스센터 신설 완료

1996년 국내 최초로 포드와 링컨의 판매를 시작해 지난 2016년 창립 20주년을 맞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공식 딜러사인 선인자동차는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3곳의 전시장을 확장 이전하고 2곳의 서비스센터를 신설하며 판매와 정비 네트워크 강화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2016년 4월에는 서비스센터가 통합된 3S 형태로 일산 전시장을 확장했으며, 8월에는 강서 전시장을, 9월에는 서초 전시장을 확장 이전했다. 확장 이전한 전시장은 최신 CI가 적용됐다. 또한, 판매 네트워크 확장과 더불어 신속하고 간편한 정비 및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0월에는 양재 익스프레스 서비스센터를 신설했으며, 부산 판금·도장 전문 서비스센터를 신규 오픈해 판금과 도장 작업이 필요한 고객에게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Ford Lineup

*제원은 2016년 12월 기준



MONDEO

(신연비 방정식 적용)

	Trend	Titanium
엔진형식	2.0L TDCi 디젤엔진	2.0L TDCi 디젤엔진
트랜스미션	파워 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파워 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배기량(CC)	1,997	1,997
최고 출력(ps/rpm)	180/3,500	180/3,500
최대 토크(kg·m/rpm)	40.8/2,000	40.8/2,000
구동 방식	FWD	FWD
승차 정원(명)	5	5
전장X전폭X전고(mm)	4,870X1,850X1,490	4,870X1,850X1,490
공차 중량(kg)	1,678	1,678
복합 연비(km/L)	15.6(2등급)	15.6(2등급)
도심 연비(km/L)	14.2	14.2
고속도로 연비(km/L)	17.5	17.5
CO ₂ (g/km)	121	121

MUSTANG

(신연비 방정식 적용)

	2.3 EcoBoost®	GT 5.0 V8
엔진형식	2.3L 에코부스트 I-4 엔진	5.0L Ti-Vct V8 엔진
트랜스미션	선택트 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선택트 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배기량(CC)	2,261	4,951
최고 출력(ps/rpm)	314/5,500(Coupe, Convertible)	422/6,500(Coupe, Convertible)
최대 토크(kg·m/rpm)	44.3/3,000(Coupe, Convertible)	54.1/4,250(Coupe, Convertible)
구동 방식	RWD	RWD
승차 정원(명)	4	4
전장X전폭X전고(mm)	4,780X1,915X1,380(Coupe), 4,780X1,915X1,390(Convertible)	4,780X1,915X1,380(Coupe), 4,780X1,915X1,390(Convertible)
공차 중량(kg)	1,680(Coupe), 1,725(Convertible)	1,750(Coupe), 1,795(Convertible)
복합 연비(km/L)	9.1(5등급)	7.3(5등급)
도심 연비(km/L)	7.7	6.1
고속도로 연비(km/L)	11.6	9.7
CO ₂ (g/km)	185	232



TAURUS

(신연비 방정식 적용)

	2.0L EcoBoost® SEL/Limited	3.5L EcoBoost® V6(SHO)
엔진 형식	직렬4기통 2.0L 에코부스트 엔진	V6 3.5L 에코부스트 엔진
트랜스미션	선택트 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선택트 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배기량(CC)	1,999	3,496
최고 출력(ps/rpm)	243/5,500	370/5,500
최대 토크(kg·m/rpm)	37.3/3,000	48.4/3,500
구동 방식	FWD	AWD
승차 정원(명)	5	5
전장X전폭X전고(mm)	5,155X1,935X1,545	5,155X1,935X1,545
공차 중량(kg)	1,890	2,020
복합 연비(km/L)	9.8(4등급)	7.9(5등급)
도심 연비(km/L)	8.5	6.7
고속도로 연비(km/L)	12.0	10.0
CO ₂ (g/km)	174	219



NEW KUGA

(신연비 방정식 적용)

	Trend	Titanium
엔진형식	2.0L TDCi 디젤엔진	2.0L TDCi 디젤엔진
트랜스미션	파워 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파워 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배기량(CC)	1,997	1,997
최고 출력(ps/rpm)	180/3,500	180/3,500
최대 토크(kg·m/rpm)	40.8/2,000	40.8/2,000
구동 방식	인텔리전트 AWD	인텔리전트 AWD
승차 정원(명)	5	5
전장X전폭X전고(mm)	4,525X1,840X1,690	4,525X1,840X1,690
공차 중량(kg)	1,850	1,850
복합 연비(km/L)	12.4(3등급)	12.4(3등급)
도심 연비(km/L)	11.3	11.3
고속도로 연비(km/L)	14.1	14.1
CO ₂ (g/km)	154	154



EXPLORER

(신연비 방정식 적용)

	2.3L EcoBoost®	3.5L Ti-VCT V6
엔진형식	2.3L 에코부스트 엔진	3.5L Ti-VCT V6 엔진
트랜스미션	선택트 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선택트 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배기량(CC)	2,261	3,496
최고 출력(ps/rpm)	274/5,500	294/6,500
최대 토크(kg·m/rpm)	41.5/2,500	35.3/4,000
구동 방식	인텔리전트 4WD	인텔리전트 4WD
승차 정원(명)	7	7
전장X전폭X전고(mm)	5,040X1,995X1,775	5,040X1,995X1,775
공차 중량(kg)	2,195	2,240
복합 연비(km/L)	7.9(5등급)	7.6(5등급)
도심 연비(km/L)	6.8	6.6
고속도로 연비(km/L)	9.8	9.4
CO ₂ (g/km)	215	227



*위 연비는 표준 모드에 의한 연비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정비 상태 및
외기 온도에 따라 실 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Ford Network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서울 11개의
전시장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31개의
포드 공식 전시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와 공식 딜러는 전국
각지에 정비공장 및 킷서비스센터도 함께
운영하는 등 고객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트웍 2016년 12월 기준



SHOWROOM		
서울	대치 전시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33 02-3442-2300
	신사 전시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03 02-3444-1300
	서초 전시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63 진석빌딩 1층 02-535-3800
	미아 전시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67 동일하이빌뉴시티 02-6355-1000
	노원 전시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55 인산빌딩 1층 02-6226-1000
	동대문 전시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람길 283 02-2246-2100
	강서 전시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12 영광빌딩 1층 02-2063-6300
	송파 전시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118 02-6928-3000
경기	방배 전시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32 02-6929-3000
	영등포 전시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02-6941-3000
	마포 전시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9 02-6420-1000
	일산 전시장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514 031-913-2200
	수원 전시장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13 031-221-7600
	분당 전시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81 031-714-2004
	평촌 전시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80 031-425-2212
	구리 전시장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158 한화생명빌딩 031-8034-1000
인천	의정부 전시장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722 031-822-1000
	인천 전시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55 032-832-0001
	대전 전시장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650 042-823-2000
	충남 전시장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566 041-562-0007
부산	부산 수영 전시장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554 051-758-0075
	부산 해운대 전시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5로 55 센텀큐빌딩 051-741-5114
울산	울산 전시장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28 052-261-3388
경남	창원 전시장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279-2 055-715-5000
대구	대구 전시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29 053-766-2000
경북	포항 전시장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337 054-285-8899
광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226 062-515-1010
전북	전주 전시장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장동유통로 29-8 063-273-0005
강원	원주 전시장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320 033-762-0040
	강릉 전시장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255번길 31 033-646-2300
제주	제주 전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515 064-759-9888

SERVICE		
서울	강북 서비스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람길 283 02-2216-1100
	강서 서비스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84 02-3661-0011
	신사 서비스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803 02-3444-1304
	양재 익스프레스 서비스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위뫼로 18길 5 02-2057-8100
	서초 서비스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89 02-536-5150
	송파 서비스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118 02-2039-3001
	북부 서비스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숭실로 277-4 02-6370-1000
	용산 서비스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24-4 02-6177-1000
경기	분당 서비스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81 031-701-7004
	일산 서비스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514 031-901-2888
	수원 서비스센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13 031-237-6340
	평촌 서비스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80 031-360-1500
	의정부 서비스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724 031-8030-1000
	인천 간석 서비스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염전로 417 032-863-6080
	인천 구월 서비스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55 032-471-6080
	대전 서비스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624 042-585-5484
충남	천안 서비스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566 041-563-0009
	부산 수영 서비스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562-9 051-758-0046
부산	부산 사상 서비스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낙동대로 932 051-715-2000
	창원 서비스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279-2 055-715-3003
울산	울산 서비스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28 070-8897-4840
대구	동대구 서비스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 55길 22 053-963-0011
	대구 수성 서비스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29 053-766-0755
광주	광주 서비스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226 062-515-1020
전북	전주 서비스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장동유통로 29-8 063-252-5400
강원	원주 서비스센터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221-10 033-762-0041
	강릉 서비스센터	강원도 강릉시 강경로 2255번길 31 033-641-2366
제주	제주 지정 서비스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남로 7 064-759-1472

COOL FROM EVERY ANGLE



360° BREATHABILITY . 100% WATERPROOF

GORE-TEX®SURROUND™(고어텍스 서라운드) 기술로

360° 전방향 투습 기능과 100% 방수 기능을 갖춘 ECCO COOL

롯데 본점 • 롯데 에버뉴엘 월드타워점 • 롯데 강남점 • 롯데 부산점 • 롯데 전주점 • 신세계 본점 • 신세계 강남점 • 신세계 센텀시티점 • 신세계 경기점
신세계 김해점 • 신세계 스타필드 하남점 • 대구 신세계 • 현대 본점 • 현대 무역센터점 • 현대 목동점 • 현대 천호점 • 현대 미아점 • 현대 판교점 • 현대 대구점
롯데면세점 본점 •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 두타면세점





ICONIC

THE NAVITIMER SINCE 1952

청담 부티크 02-3448-1230 롯데호텔 소공 스토어 02-3789-9017

갤러리아 EAST 수원점 천안점 대전점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강남점 잠실점 월드타워점 대전점 대구점

울산점 광주점 부산 서면점 부산 센텀시티점 부산 광복점

신세계백화점 본점 강남점 영등포점 의정부점 인천점 하남점 충청점 대구점 부산 센텀시티점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무역센터점 목동점 신촌점 판교점 대구점 울산점

AK플라자 분당점 대백프라자 명보사



BREITLING.COM

INSTRUMENTS FOR PROFESSIONALS™